동아 88. 3. 14

朴鍾哲군 사건의 일단락

社說

우리의 刑事司法은 권위주의의 청산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성실히 대응하고 있는가. 민주화의 핵심인 人權의 옹호를 위해, 公權力의 횡포를 진정으로 다스려나갈 결의가 섰는가. 朴鍾哲군 고문치사 사건의 일단락은, 그 새삼스러운 물음을 새삼스럽게 묻게 한다.

그것은 剖檢醫의 소견서를 바꾸도록 강요했다는 전치안본부장 姜致昌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시만은 아니다. 전치안감 朴處源 피고인등 범인은폐조작의 관련자들 역시 집행유예로 풀려났었다는 재판결과의 일치도 구태여 상기하고싶지는 않다.

첫 공판에서 사실심리와 구형을 마치고, 두번째 공판에서 선고를 끝낸 재판의 신속을 굳이 논란하고싶은 생각도 없다. 모든 재판은 公正과 함께 신속을 요구한다. 「正義의 지연은 不義가 된다」는 法諺은 오늘에도 정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재판이 이번처럼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랄 따름이다.

그러나 검찰수사에서 재판에 이르는 형사사법의 전과정에 결쳐 「신속하고도 적당한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으려는 「속전속결주의」가 일관되게 이어졌다는 사실마저 눈감아버릴수는 없다. 姜피고인의 완강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증인신분도 없이 삼라를 마쳐버린 경위 또한 납득되지 않는다.

더구나 사회정화의 표적이 되어 이른바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대해서도, 재판은 아부런 실체적 진실은 파헤치지 못한채 넘어갔다. 물론 재판부의 심리는 訴追의 내용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은 공권력의 비인간적 행사에 종지부를 찍는다는 시대적 의미를 가졌다는 점에서 미흡함을 느끼지않을수 없다.

적어도 검찰이나 변호인과 법관등 法曹의 세기둥이 그 시대적 사명을 인식했다면, 고문치사라는 反人間的 공권력행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원천적 절근의 노력이 있어야 했던것은 아닌가. 공소제기 이후라는 제약에도 불구하고, 그 인식이 뿌리했다면 사회정화나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수도 있었으리라고 믿는다.

오늘, 權座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大轉換을 말한다. 그 대전환의 현실적 과제는 권위주의의 청산과 민주화로 요약된다. 그러나 그 모두가 궁극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열어가자는 뜻으로 귀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人權의 옹호가 가장 절실한 오늘의 목표이다. 그것을 외면하고서는, 어떤 권위주의의 청산이나 민주화의 추구도 공허할 뿐이다.

한마디로 大轉換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다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할것은, 사법과 관련된 공권력이다. 사법적 訴追의 前節次를 담당하는 수사기능이 달라져야 한다. 공소를 담당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검찰도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 변호인과 사법부 또한 달라져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변화를 도무지 확인할수 없는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일단락은 이땅의 민주화를 낙관할수 없게 한다. 오히려 알울한 전망이 눈앞을 가린다.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늦지 않다. 우리의 刑事司法은 換骨脫胎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신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열어가자는 뜻으로 귀착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人權의 옹호가 가장 절실한 오늘의 목표이다. 그것을 외면하고서는, 어떤 권위주의의 청산이나 민주화의 추구도 공허할 뿐이다.

한마디로 大轉換은 인권의 보장으로부터 다짐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달라져야할것은, 사법과 관련된 공권력이다. 사법적 訴追의 前節次를 담당하는 수사기능이 달라져야 한다. 공소를 담당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검찰도 마땅히 달라져야 한다. 아울러 변호인과 사법부 또한 달라져야 하는것은 당연하다.

그 당연한 변화를 도무지 확인할수 없는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일단락은 이땅의 민주화를 낙관할수 없게 한다. 오히려 알울한 전망이 눈앞을 가린다. 오늘 아니 내일이라도 늦지 않다. 우리의 刑事司法은 換骨脫胎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우리 모두가 신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 보루로 건듭 퇴하는 진정한 인권의

「朴군死亡」損賠청구소송

추모사업회 拷問 사건관련자 全員 상대로 6일 제출하기로

1988. 4. 4 동아

재야인사와 시국사건관련 고문피해자및 최루탄피해자와 가족들은 오는6일 「고 朴鍾哲군 추모사업회」(회장金勝黙신부)를 구성, 국가를 상대로 朴군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하기로 했다.

朴군과 연세대앞시위도중 최루탄에 맞아 숨진 李韓烈군의 가족을비롯, 富川경찰서 성고문사건의 피해자 權仁淑양,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사건으로 현재 법원에 재정신청이 계류중인 金槿泰씨의 부인 田在蘭씨, 전서울대총학생회장등 서울대생,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구로구청 농성사건관련 피해자 가족협회, 光州사태피해자대표와 재야 각계인사들은 6일 한국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고 朴鍾哲군 추모사업회」를 결성, 姜致昌전치안본부장등 朴군사건관련자 전원과 사건당시 내무 법무장관 관계기관대책회의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들은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원고인단으로 구성, 이같은 소송을 내기로한데 대해 「朴군사건은 朴군의 가족뿐아니라 전신적으로는 전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朴군 拷問사망」 3억 損賠소송

추모사업회 国家상대…… 가족등 41명 명의로

4.09 조선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朴鍾哲군추모사업회(회장金勝勳신부)는 8일 국가와 고문경관 5명, 당시 검찰-경찰및관계기관고위간부등28명을 상대로 2억8천7백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사업회는 총 손해배상액이 11억7천만원에 상당하나 1차로 2억8천7백만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소장에서 『朴군 고문치사사건은 특별한 개인에의해 저질러진 우발적인사고가아니라, 해방이후 40년이상 축적된 이 사회의 모순의 발현이며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라며 『고문의 직접적피해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연대하여 그 행위자와 국가권력에대해 사실적으로는 물론, 법적으로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실을 파헤치는것이 불법적인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朴군의 부모 朴正基씨와 鄭旦順씨등 朴군가족, 金槿泰씨부인 印在槿씨,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權仁淑양, 金民錫군어머니 金春玉씨등 고문피해자와 그가족및 양심수와 관련단체 대표등 41명이며 黃仁喆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 19명이 소송대리를 맡았다。

拷問관련 28명상대

11億여원 損賠청구

4.09 동아

朴鍾哲군 추모회 1차로 2億8千萬원 소송

고朴鍾哲군추모사업회(회장 金勝勳신부)는 8일 오후 국가와 趙漢慶씨등 고문경찰관 姜玟昌전치안본부장 徐東權전검찰총장 張世東전안기부장등 朴군고문치사사건당시 정부와 검경관계자 28명을 상대로 11억7천여만원의 손해액중 1차분 2억8천7백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추모사업회는 이날 黃仁喆 洪性宇 趙英來씨등 19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朴군 사건은 특정한 개인들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이 아니라 해방이후 40년이상 축적된 우리사회 제반모순의 발현으로서 필연적으로 일어날수밖에 없었다』며 『불법적고문과 폭력을 자행하는 국가및 하수인들의 행위를 견제하는 유일한 방법은 고문의 직접피해자뿐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권력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는것』이라고 주장했다。

추모사업회는 이 소송을제기하는 이유는 △범인을 축소하고 사건을 은폐하려한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체를 밝히고 △국가의 불법적인 고문및 폭력의 재발방지 정치적 비정치적목적의 불법적인 고문및 일체의 폭력에 반대하는 국민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밝혔다。

拷問致死사건 폭로한
黃鎭駿씨 美이민고려
NYT서 보도

【워싱턴=鄭鍾文특파원】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폭로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 법의학과장 黃鎭駿박사가 美國이민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紙가 4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紙는 「黃씨의 폭로로 韓國은 7년이후 처음으로 진정한 대통령선거를 하게 됐으나 黃씨는 영원히 실직하게 됐다」고 지적하고 「黃씨가 경찰에 파문을 일으켰던 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朴鍾哲군사건·權仁淑양사건등 사건이 날때마다 튀어온 판에박힌 논리.

81년 서울 元暎路 尹노파 피살사건을 수사하면 河英雄형사가 尹노파의 저금통장을 훔친 사건이 발생했을때 경찰은 거듭 태어나겠다고 천번 만번 다짐했었다.

86년 富川署 성고문사건때도, 지난해 朴군사건때도 경찰은 매번 『뼈를 깎는 자기혁신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다짐했지만 몇번을 「다시 태어나도」 옛버릇들은 여전하다.

그러고도 경찰내부에선 『재수없이 걸려들었으니 이 다음엔 그저 신분에만 안나면 된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지나 않은지.

고문하는 경찰관, 국민을 괴롭히는 경찰관을 국민들은 더이상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경찰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정병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가 되겠다면 시민의 권리보다 경찰조직·경찰관 개인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고, 일을 당하고도 그때뿐인 이 잘못된 관행을 뿌리째 뽑아버려야만 한다.

민주화시대를 맞아 경찰의 換骨奪胎를 위해 경찰이 어떻게 해야할까. 온국민의 아이디어라도 공모하고픈 심정이다.

朴鍾哲군사건 억울한 죽음이 몰고온 역사전환의 소용돌이가 아직 진행중인 가운데 또다시 경찰관 3명이 집단물고문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朴군사건직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고문할수 있느냐』는 내부장관의 반문이나 경찰관들의 「고문추방결의대회」는 모두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했다는 것을 경찰 스스로의 손으로 입증한 셈이다.

왜 이럴까.

『사람은 사람을 고문할수 없으나 경찰관은 사람을 고문할수 있다』고 아직도 우리 경찰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더구나 구속된 경찰관들은 『책권자를 구속시켜 빚을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채무자의 부탁으로 첩부수사를 했다고 하니 더 할말이 없다.

또 피의자들을 파출소 3층 숙직실에 가둬놓고 이틀이상 고문했다니 밀실수사 근절을 외쳐대던 경찰간부들의 다짐이 무색하다.

부하직원들의 선처(?)를 부탁하려 검찰청에 나타난 경찰간부들의 변명은 더욱 가관이다.

『부하직원들이 공명심에서 무리하게 수사하다 일어난 불상사입니다』

朴鍾哲군사건·權仁淑양사건등 사건

거듭 태어나도 못버린 惡習

李相彦 기자 <사회부>

1988 5. 13

308.5

朴鍾哲군 損賠訴 첫공판

2차공판 29일 열기로 5.2

동아 國家 拷問경관등 28명상대 被訴人에 통지안돼 10분만에 끝나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첫공판에 나온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와 어머니 鄭且順씨 누나 恩淑양。

고朴鍾哲군추모사업회(회장 金勝勳신부)가 국가와 고문경찰관5명, 張世東전안기부장 金宗鎬전내무부장관 徐東權전검찰총장등 관계자 28명을 상대로 낸 2억8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25일 오전10시20분 서울민사지법212호법정에서 합의14부(재판장 金正洙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張世東전안기부장등 12명의 피고소인에 대해서 소장부본과 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않아 재판부가 주소보정명령을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내린뒤 오는6월29일 다시 재판을 열기로하고 10여분만에 끝났다。

이날 법정에는 黃仁喆 朴元淳변호사등 추모사업회측 대리인5명과 朴군의 부모인 朴正基씨 鄭且順씨와 누나등 가족들과 민가협회원등 3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앞으로 재판진행과정에서 趙漢慶씨등 고문경찰관과 朴處源전치안감 姜玟昌전치안본부장등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할것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에따라 경찰의 범행은폐축소조작등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을 둘러싼 검찰경찰등의 당시입장과 움직임, 관계기관대책회의내용등이 법정에서 간접적으로 드러나 다시 논란이 될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재판부가 국가와 고문경찰관 이외에 당시 관계기관고위간부인 전안기부장과 전검찰총장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지의 여부가 관심의 촛점이 되고있다。

◇원고측주장=朴군추모사업회는 지난4월8일『권력에 의해 자행되는 정치적 비정치적 목적의 불법적인 고문 및 일체의 폭력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의 계기를 마련하기위해 이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은 朴군가족과 다른 고문피해자및 그가족, 양심수 및 관련단체대표, 종교계 문화계등 인사들이 朴군추모사업회를 만들어 소송을 낸다』며 서울민사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사업회는 소장에서『국가및 당시의 검경간부, 내무부장관등은 朴군고문치사후에도 사건의 은폐축소조작, 朴군시신에 대한 화장(火葬)강요와강행, 가족에 대한 회유 협박과 추모집회탄압등을 통해 이중3중으로 고통을 가했다』며 『국가공권력의 불법행위에대한 징벌적차원에서 朴군부모에게는 각3억5천만원, 朴군누나와형에게는각각5천만원씩, 그리고 나머지 고문피해자가족인 원고41명들에게는 각1천만원씩 모두 11억7천만원을 지급해야하나 우선 일부인 2억8천7백만원만 청구한다』고 밝혔다。

사업회는 또『朴군사건은 특별한 개인에의해 저질러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해방이후 40년이상 축적된 이사회의 모순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날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며『고문의 직접피해자뿐아니라 전국민이 연대하여 고문경찰관과 국가권력에 대해 사실적으로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묻고 진실을 파헤치는것이 불법적인 고문을 자행하는 국가권력을 경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전망=추모사업회변호인들은 趙漢慶씨등 고문경찰관5명과 朴處源전치안감 姜玟昌전치안본부장등 은폐축소조작관련자등에 대한 검찰수사기록을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따라서 이 수사기록이 공개될경우 경찰과 검찰의 초동수사내용과 그후의 각종 은폐축소조작사실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질것으로 보인다。

고 박종철 손해배상 소송 오늘 첫공판 열려

재야인사와 국가사건관련 고문피해자 및 최루탄 피해자가족 등으로 구성된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회'가 국가와 박씨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28명을 상대로 낸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212호 법정에서 열린다.

좌담/박종철군 고문치사 은폐조작 발표 1주년을 맞아

"민주의 제단서 부활했다"

아직도 진실은 베일 속에

1988 5 22

▲황 : 작년 1월14일, 남영동에 있는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밀실에서 박종철군이 고문살해된지도 1년 4개월이 지났읍니다. 그 후 5월18일, 여기 계신 김승훈신부님께서 은폐조작사실을 공개하셨고, 금년 1월 박종철군 사망 1주년에 즈음해서 당시 부검에 참여했던 황적준박사가 사인(死因)에 대한 은폐압력을 폭로했읍니다. 그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고문치사와 은폐조작과정의 진실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있읍니다. 지난 4월,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가 발족되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민사소송이 진행되면 그 과정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김 : 돌이켜보면 박종철군 사건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공포를 통치수단으로 하는 군사독재체제의 실체와 정권의 도덕성·기만성까지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사건이었읍니다. 다른 한편으로 박종철군의 죽음이 이 땅에 민주화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예수가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박종철군의 참혹한 죽음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런 체제가 지속되는 한 인간답게 사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게 하였고, 그것은 작년 6월항쟁과 민주화의 기틀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읍니다.

6월항쟁·민주화 계기로

▲황 : 박종철군의 희생이 남긴 의미와 관련해서 은폐조작의 사실을 국민 앞에 밝힘으로써 권력의 본질을 드러내고 6월항쟁을 이끄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제단의 김승훈신부님께서 작년 5월18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성명을 발표하시기까지의 경위와 과정을 말씀해 주시지요.

1987년 6월, 전국에 걸쳐 일어난 장엄한 민주항쟁은 마침내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국민 앞에서 민주화에 대한 승복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그것이 어떻게 불리건 6·29선언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은폐조작한 사실의 공개는 정치권력의 본질과 그 파탄난 도덕성을 세상에 드러냄으로써 민주화운동에 기폭제가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당시 이 사실을 세상에 폭로한 김승훈 신부, 대한변협의 진상조사위원이요, 박종철열사 추모사업회 회장인 황인철변호사, 그리고 양건교수와 함께 박종철군 사건의 의미와 그 전개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전망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석자
- 김승훈 (신부)
- 황인철 (변호사)
- 양 건 (한양대 교수·법학)
- 때 : 1988년 5월 14일
- 장소 : 평화신문 회의실

◇왼쪽부터 김승훈 신부, 황인철 변호사, 양건 교수.

정권본질 변치않아 진상밝힐지 의문
추모사업회의 민사소송 진행에 기대

소송은 배상보다도 진실을 밝히는 데 더 큰 목적이 있읍니다. 이 소송은 진실을 밝힘으로서 소송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 지금 달라진 국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

평화의 소리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지난 15일 오후, 명동성당 구내 가톨릭교육관 3층 옥상에서 칼로 자기 배를 자해한 채 12m 아래로 뛰어내려 숨진 서울대 조성만군의 일은 우리의 마음을 천 갈래, 만 갈래로 아프게 하고 있다. 우선 조성만군의 죽음 앞에 선 우리의 통분은 언제까지 이런 죽음이 계속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것이다. 1970년대 초 평화시장 노동자 전태일씨의 분신자살 이후, 학생과 관련해서는 1975년 4월의 서울농대 김상진군의 죽음 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민주화와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자신을 던졌는데, 그와 같은 죽음이 또다시 오늘에도 여전히 나타나야 하는가 하는 현실에 대한 아픔과 죄책이 우리를 짓누른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정치는 달라져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민주화에 대한 오랜 국민의 소망을 대화와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루어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것 또한 부인할 길이 없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전망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고, 특정지역에 기반을 두고 진출한 각 개의 야당이 앞으로의 민주화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불신과 의혹이 조성만군으로 하여금 자신을 던지게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더 구체적으로는 민주화를 향한 첫 걸음이요 그 시금석이라 할 양심수의 전면석방과 사면복권, 수배해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유없이 거부 또는 유예되고 있는 데서 이번 불행한 사태는 유발된 것이다. 가혹한 고문과 용공조작은 마침내는 그것이 폭로될까 두려워 석방을 장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최근의 선별석방 논의는 이런 과거의 공권력의 횡포와 남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 심증이다.

재야 민주단체들이 석방을 호소하는 양심범 가운데는 장기수와 재일교포정치범 등 관용에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는 오는 7월 2일로 구금된지 만 20년이 되는 오병철씨 같은 사람도 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우리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연륜이 아니다. 우리는 차제에 양심수·정치범에 대한 완전한 석방과 함께 용공조작,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한 일상적 고문을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할 것을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석방을 계기로 이른바 공안사범에 대한 고문과 용공조작문제도 함께 척결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명분이나 절차의 문제를 떠나 석방을 애소하는 가족들의 절규가 어떠한 것이며,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진지하게 함께 가늠해 볼 것을 관계당국에 간곡히 호소하는 바이다.

우리는 조성만군이 "차마 떠날 수 없는 길을 떠나고자 하는 순간에, 척박한 팔레스티나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한 인간이 고행 전에 느낀 마음을 알 것도 같습니다"고 한 그의 기록이나 고백을 읽으면서, 하느님이 주신 생명 자체를 거역하는 행위에 대해서 안타까와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뜻, 그의 투신의 결단은 고귀하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더 신성하고 고귀한 것이다. 이제는 제발 어떠한 이유로든 인간의 생명을 거역하고 부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폭압의 권력이 생명을 경시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드높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 이기는 일이다. 죽음으로 항의할 일이 있다면, 끝까지 살아 남아서 마침내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의 참된 도리이다.

'박종철씨 고문치사' 손해배상소송 첫공판

308.5

'대책회의'관련자 배상책임 주목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회'가 국가와 박씨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 28명을 [illegible]로 [illegible]억 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공판이 25일 오전 10시 서울 민사지법 합의 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으나, 장세동 전 안기부장 등 11명의 피고에게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아 재판부가 원고측 변호인들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린 뒤 오는 6월29일로 공판을 연기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박씨의 부모와 가족을 비롯, 고문 피해자 가족 및 양심수 관련단체 대표 등 모두 41명이며 황인철 변호사 등 19명의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참가하고 있다.

또 조한경 전 경위 등 직접 박씨에 대한 고문에 가담한 경찰관 이외에 당시 치안본부 간부 10명과, 사건의 은폐·조작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해구 전 안기부차장, 김종건 전 청와대 사정담당 수석비서관, 서동권 전 검찰총장, 김종호 전 내무장관을 비롯, 당시 서울대 안에 차려진 박씨의 빈소를 강제철거한 박봉식 전 서울대 총장, 손제석 전 문교부장관 등 모두 28명이 피고로 되어 있다.

추모사업회측은 "이 소송이 단순히 경제적·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민사적 방법에 의한 응징'의 의미도 띠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국가나 직접적인 고문행위자 이외에 '관계기관 대책회의' 관련자 등의 배상책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변호인들은 또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서 박씨 고문치사 사건 및 은폐·조작 사건의 검찰 수사기록을 증거로 제출하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혀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의 은폐·조작과 관련한 움직임이 간접적으로나마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모사업회는 지난 4월8일 제출한 소장에서 "이 사건은 고문경관 몇몇에 의해 저질러진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나 '당정대책회의' 등 당시 제5공화국 정권의 최고의결기관이 신중한 회의와 결의를 거쳐 공무원들에게 지시, 은폐한 것"이라며 "이 소송은 일정 금액의 청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고문폭력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독재권력과 하수인들의 반인류적 범죄를 심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씨, 어머니 정차순씨와 누나, 형을 비롯, 전태일씨 어머니 이소선씨, 김춘옥씨 등 민가협 회원 20여명이 방청했으며 원고측의 황인철,박원순, 조용환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김 : 거짓된 정권은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밝혀진 것이 박종철군 사건입니다. 처음 고문치사 사실이 밝혀졌을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교회에서도 9일 기도회를 가졌고, 14일이 되는 날에는 전시민적 집회가 명동성당에서 열렸죠.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건의 진상이 조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은 4월말이었읍니다. 그러나 그 이후 여러 차례에 걸친 조사와 발표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진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읍니다. 그러나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입니다.

▲황 : 양교수께서 구조적인 문제라 할까, 독재는 필연적으로 이런 과정, 이런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양 : 이 사건이 함축하는 의미는 여러가지일 수 있겠읍니다만,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하나는 이른바 제5공화국정권의 드대와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여 주었다는 점입니다. 넓게는 박군 사건이 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었다는 점을 들 수 있읍니다. 제5공화국 자체는 수많은 사람의 희생을 동반하는 물리적인 힘에 의해 공포정치로 유지되다가 한계점에 부닥쳤다고 봅니다. 시차는 있지만 담당 또는 부검에 참여한 의사, 혹은 담당검사나 경관의 가족 등 선의의 정의로운 사람들에 의해 그나마 진실이 조금씩이나마 밝혀지고 있는 것은 물리적인 힘에 의한 통치의 한계가 시민적인 차원에서 깊이 인식되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국가권력의 토대라 할 군대·경찰이 도덕성을 상실할 때, 불량배 집단의 물리력과 구별될 수 없게 됩니다. 박군 사건은 이런 의미에서 제5공화국 정권의 본질을 여지없이 드러내 보여 주었읍니다.

또 85년의 2·12총선 이후 정권의 정통성 시비가 직선제라는 개헌논의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화논의의 본질이 개헌논의인 양 인식되고 있던 상황에서 박군사건은 개헌논의의 허구성과 함께 민주화가 곧 인간화여야 한다는 것을 국민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었읍니다.

▲황 : 5·16 이후 군사통치문화가 시작되면서 내세운 것이 반공과 반공을 내세운 공안논리였읍니다. 그 논리는 곧 공안문제와 관련된 고문 등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생각을 수사관·검찰 등으로 하여금 알게 모르게 갖게 했읍니다. 그러다가 공안논리의 본질이 민주화투쟁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김근태사건이 대표적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후 성고문사건, 의문의 변시사건 등이 터졌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여 박종철군 사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박군사건이 민주화의 본질과 정치권력의 본질을 밝혀 주었다는 양교수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맥락에서 박군사건의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 국민이 통치를 위한 도구, 명령의 대상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박종철군은 자신의 죽음으로 전달했읍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러한 군사문화의 베일이 두꺼운 만큼 과연 밝혀질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황 : 박종철군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과 통합니다.

"박종철군은 죽지 않았다"

▲김 : 정치권력의 본질이 변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서는 계속 은폐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진상을 밝혀나가야 되고 또 밝혀지게 마련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작년 2월7일 명동성당에서 있었던 범국민 추모대회에서 문정현 신부는 강론을 통해 "박종철군은 절대 죽지 않았다. 그는 되살아나 우리 마음 속에 함께 있다. …정부·여당이 박군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고, 우리 국민과 함께 하는 길은 고문진상을 밝히고 물러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죠. 결국 민주사회가 올 때 밝혀질 것입니다.

▲양 : 박군이 고문에 의해 사망했다는 경찰발표와 그 이후에 있었던 2·7추모대회. 3·3평화대행진 때만 해도, 비록 행사가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었다고는 하나, 시민들이 아직 행동으로 표출할 단계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다 결정적으로 소시민, 중간계층의 행동을 촉발시킨 것이 은폐조작의 발표였다고 생각됩니다. 이때 정권의 도덕성·진실성에 대한 불신이 결정적으로 심화되었는데, 가장 의심스러운 것은 역시 '관계기관대책회의'가 아닌가 합니다. 박군사건이 밝혀지려면 관계기관대책회의, 민정당과 정부 간의 당·정대책회의의 과정이 밝혀지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권의 핵심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박군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는 날은 민주화가 완전히 실현되는 날이 될텐데…. 따라서 그렇게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황 : 지난 4월 '박종철열사 추모사업회'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통상적인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성격과 틀 자체를 달리하는 소송입니다. 우선 원고가 박종철군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김 신부님을 비롯, 많은 민주단체의 인사와 시민·학생을 포함, 41명으로 돼 있읍니다. 특정인의 아들, 박종철군의 죽음이 아니라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국민들의 자식이 죽었다는 상징성과 함께 사망 후에 있었던 당국의 조치들에 의해 피해를 본 온국민이 원고가 되어야 한다는 관점에 입각해 있읍니다.

피고 역시 29명이나 됩니다. 고문살해 자체는 물론, 그 후에 있었던 당국의 부당한 처사들이 바로 불법행위입니다. 불법연행과 구타, 물고문·전기고문과 살해, 치안본부에 의한 은폐음모, '관계기관대책회의'

의혹의 '관계기관 대책회의'

'당·정대책회의' 등에 의한 은폐축소조작 음모, 경찰과 검찰에 의한 은폐축소조작, 화장에 의한 증거인멸 음모, 가족들에 대한 회유·위협·감시, 추모집회 참석과 추도회 방해와 탄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경찰관계자는 물론 관계기관 및 당·정대책회의 구성원들,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 당시 법무부장관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로써 권력에 의해서 자행되는 모든 불법적 고문을 반대, 추방하는 범국민적 운동의 성격을 지니고 있읍니다.

▲김 : 부정선거소송을 사제단에서 제기해놓고 있는데, 과연 법원이 소송 자체를 정의의 기준에 맞추어, 또 우리가 소망하는 방향대로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황 : 고문경관들의 사건기록, 부검의의 검시조서, 초동수사경위, 은폐조작의 기록 등을 변호사도 본 사람이 없읍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자료로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증인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실규명은 어려운 것이지만, 하나씩 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 : 충정은 이해가 가고, 또 그래야 한다는 것도 잘 알지만, 어쩐지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웃음).

▲황 : 민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수록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쉽지 않겠느냐는 희망을 갖고 있읍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화된 정국도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읍니다.

▲양 : 황변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 소송은 시민소송이라고 이름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고, 신부님 말씀처럼 이 소송의 최종판결 날은 민주화가 되든가, 또 다시 암흑이든가 둘 중의 하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군사건은 시국사건, 용공조작사건은 곧 시민의 문제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기 때문에, 관련된 소송도 새로운 형태, 즉 캠페인성, 국정조사권을 발동하는 것도 소송과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은 개정된다는 전제 위에서 말입니다.

한편 요즘 일간지들을 보면 소수여당과 다수야당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러나 민주화는 인간화이고 정권의 도덕성 문제라는 차원에서 보면 오늘의 상황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언론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리—허기선 기자

"고문추방운동의 모체되길"

▲김 :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용공좌경으로 모는 과정, 그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황 : 그렇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난 뒤 고문과 인권, 용공조작에 대한 경각심이나 추방의지가 퇴색해 가는 상황입니다. 정권의 실체와 본질이 변하지 않고, 또 명노열군 사건·양원태군 사건·서초경찰서 고문사건 같은 것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모처럼 발족된 박종철열사 추모사업회가 국민들의 고문추방운동의 모체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 : 박군의 죽음, 그리고 박군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든 국민이 존엄한 인간으로 사람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 함께 가다듬어야 하겠읍니다.

▲양 :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문문제는 민주화의 핵심이며, 민주화과정이 계속되는 한, 박군 사건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拷問致死 은폐조작」일기장공개 黃迪駿박사

"良心따라 한일… 후회없다"

308.7

1988. 5. 28
동아

터무니없는 美移民說에 또한번 괴로움

협박전화에 시달려 힘겨운 나날

"姜본부장 거짓진술에 실망…그도 속죄양"

黃迪駿박사는 법의학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유학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치안본부대공수사2단에서 경찰관들의 물고문으로 숨진 고朴鍾哲군의 사망당시 부검의였던 黃迪駿박사는 지난 1월중순 朴군사건1주기를 맞아 치안본부간부들의 은폐조작을 기록한 일기장을 공개한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그만둔뒤 격려전화도 많이 받았으나 협박전화와 악성 투머에 시달리는등 힘겨운 나날을 보내왔다.

그는 朴군사체 부검후 「쇼크에 의한 심장마비」로 부검감정서를 작성하라는 치안본부간부들의 압력과 회유를 뿌리치고 고문치사임을 입증하는 감정서를 써 朴군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었다.

법의학이라는 그늘진 외길만을 걸어온 그는 일기장공개후의 파문으로 직장을 떠난뒤에도 적지않은 협박전화에 시달려오다 최근 외지에 엄뚱한 이민설이 보도돼 곤혹스런 입장에 빠지기도 했다.

朴군사건에 관련됐던 당시의 입장과 착잡한 심경을 정리하면서 현재 유학준비중인 黃박사를 자택으로 찾아가보았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무심코 공개한 일기장으로 사건이 그토록 확대될 줄 몰랐다. 충격때문에 한동안 잠을 못이루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다. 사건직후 격려전화와 함께 협박전화가 수없이 걸려와 전화번호를 바꿔야했다. 「민정당이 姜전본부장을 국회의원공천에서 탈락시키기 위해 내게 5억원을 주고 시킨일」이라는 터무니없는소문에도 시달렸다』

—일기장 공개후 후회했다는 말이 나돌기도했는데…。

『후회할만큼 나쁜일을 했다고 생각하지않는다。다만 열악한 조건에서도 묵묵이 일해온 법의학계동료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데 대해 미안한 심정을 떨쳐버릴수 없다。개인적으로는 한창 나이에「일」을 빼앗겼다는 것과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공사양면에서 인간관계를 유지해오던 사람들과 멀어져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할것이라는 점때문에 번민을 많이 했다』

—「뉴욕타임스」紙 지난4일자에 「黃박사가 실직한뒤 한국에서의 앞날이 불투명해 미국 이민을 고려중」이라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다。지난달중순 「클라이드 하버만」이라는 「뉴욕타임스」東京주재기자가 집으로 찾아와 30여분간 취재를 한적이 있다。이 자리에서 내 희망인 교단에 서기위해 2~3년간 유학을 고려중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것이 와전된듯하다。그 신문이 나간뒤 「뉴욕타임스」서울사무소로부터 사과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다』(黃박사가 보여준 편지에는 「본의아니게 누를끼쳐 죄송하다。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겠다」고 씌어있었다)

—朴군사건은 6월항쟁의 불을 지핀 사건으로 평가받고있다。자신이 한 역할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검감정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압력과 회유가 심해 번민을 많이 했으나 나는 양심에 따라 진실을 선택했다。그리고 그것이 직무에 충실한 길이었다。수양을 더쌓고 법의학공부를 계속 파고들어가겠다。내가 익명의 법의학자로 남아 일할수있도록 사회적관심이 하루빨리 줄어들기를 바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1과장직의 사표를 낼때의 심경은。

『동료들이 극구 말렸으나그들에게 괴로움을 줘 계속 근무하기가 고통스러웠다』

—일기장공개후 姜玟昌전 치안본부장이 구속됐을 때는 어떠했나。

『姜본부장이 궁지에 몰리자 나를 만난일조차 없다고 거짓말을 했을때 몹시 실망했다。하지만 그도 결국 속죄양이 아니겠는가』

—공직자사회의 윤리의식에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방향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이같은 큰흐름에 공직자들의 의식구조가 보조를 맞추지못한다면 언제 다시 朴군사건과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벌어질지 모른다』

—앞으로의 계획은。

『원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는 4~5년 정도만 근무할 예정이었다。모교(고려대)에서 교단에 설기회가 주어지는대로 후배들을 가르치고 싶다。이에 대비해 현재 일본 미국 서독등 여러곳에 유학신청을 하는 중이다。일이 성사되면 혼자 건너가 2~3년간 공부를 하다 올 예정이다』

黃박사는 실직후 「가장노릇도 제대로 못하는 못난사람」이라는 생각때문에 괴로왔지만 九里市에서 이비인후과병원개업중인 고려대의대동창생인 부인과 국민학교에 다니는 두아들이 잘 이해해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崔永默기자〉

박 경철 1988.

前내무장관등 26명 書面진술

朴鍾哲군 損賠訴 張世東·金聖基씨는 송달안돼 분리裁判

308.5

경향

朴鍾哲군추모사업회가 국가와 고문경찰관5명, 張世東전안기부장, 金宗鎬전내무부장관, 金聖基전법무장관, 徐東權전검찰총장등 관계자 28명을 상대로낸 2억8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2차재판이 29일상오10시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 (재판장金正洙부장판사)심리로열렸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측의 소장내용진술과 피고측의 답변서제출이 있었으며 피고중 張世東전안기부장과 金聖基전법무장관등 2명에 대한 송달보고서가 법원에 접수되지않아 이들2명은 분리재판키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측의 신청에 따라 오는7월15일 趙漢慶씨등 고문경관5명과 朴處源씨등 당시 치안본부간부 3명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하기로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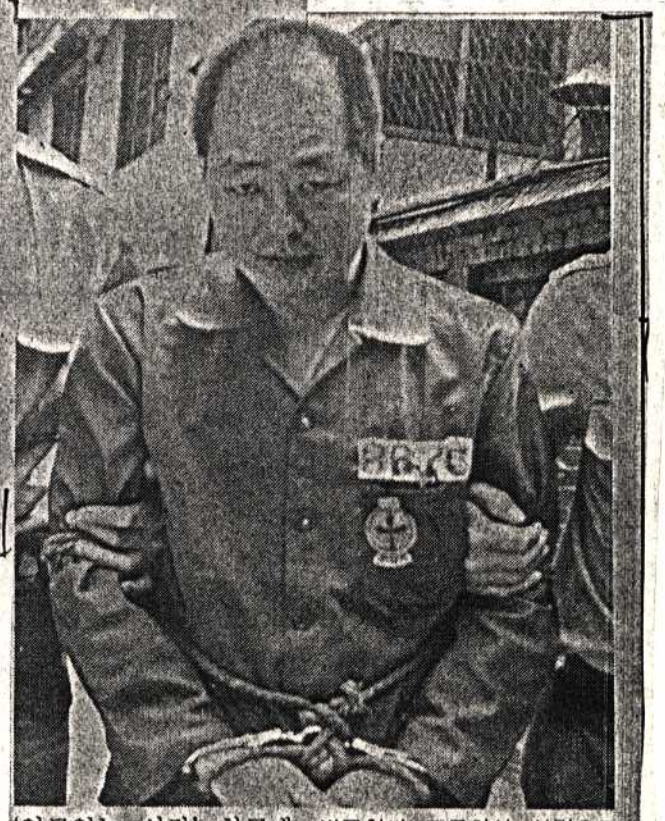
이날 재판에서 26명의피고들은 서면답변진술을통해 朴군의 사망사실만인정하고 고문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며 李海龜 전안기부차장은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만 있는 것이므로 자신은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음재판은 7월27일 상오10시.

1983. 6. 29

경씨 공소사실 부인

사 항소심 6차 공판



'얼굴없는 사람' 첫공개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조한경(43·전 경위)씨가 10일 오후 상관들의 고문은폐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구속 이후에도 철저히 감춰졌던 조씨의 얼굴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규 기자〉

朴군 拷問致死관련 朴處源 치안감 오늘 정년퇴임

308.5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당시 치안본부5차장이었던 朴處源치안감(60)이 30일 정년퇴임했다.

1983. 6. 30

檢察 수사기록 증거 조사키로

拷問致死배상 裁判

고 朴鍾哲군추모사업회가 국가와 고문경찰관5명, 張世東전안기부장, 金宗鎬전내무장관등 관계자28명을 상대로 낸 2억8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2차재판이 29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212호 법정에서 합의14부(재판장 金正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추모사업회측 변호인 黃仁喆변호사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趙漢慶씨등 고문경찰관5명, 朴處源전치안감등 축소조작모의관련 경찰간부3명, 姜玟昌전치안본부장등 모두 9명의 검찰수사기록에 대한 증거조사를 오는 7월15일 오후에 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7월27일오전 10시.

1983. 6. 29

강민창 · 조한경씨 공소사실 부인

박종철 고문치사 항소심 6차 공판

308.5 1988. 6. 11

박종철씨 고문치사범인 은폐·조작사건과 관련,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한 박처원(60·전 치안본부 5차장), 유정방(49·대공수사2단 5과장), 박원택(47·5과 2계장)피고인등 전 경찰간부 3명에 대한 항소심 6차 공판이 10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최공웅 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과 조한경 전 경위 등은 "고문에 가담한 사람이 어떻게 2명으로 조작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재판부는 부검 의사 황적준 박사를 증인으로 채택, 오는 7월1일 오후 2시 신문키로 했다.

'얼굴없는 사람' 첫공개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으로 형이 확정돼 복역중인 조한경(43·전 경위)씨가 10일 오후 상관들의 고문은폐조작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나오고 있다. 지난해 1월 구속 이후에도 철저히 감춰졌던 조씨의 얼굴이 공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선규 기자〉

檢察 수사기록 증거 조사키로

拷問致死배상 裁判

[illegible]

1988. 6. 29

朴군 拷問致死관련 朴處源 치안감 오늘 정년퇴임

308.5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당시 치안본부5차장이었던 朴處源치안감(60)이 30일 정년퇴임했다.

1988. 6. 30

30일 오전11시 서울서대문 치안본부 청사 지하강당에서는 경찰악대가 연주하는 「조국찬가」의 선율이 흐르고 있었다.

청사에 근무하는 1천여명의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朴鍾哲군고문치사은폐조작사건과관련, 범인은닉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던 朴處源전치안본부5차장(치안감)의 정년퇴임식이 열리고있었다.

『朴치안감께서는 41개성상을 대공수사경찰의 외길을 걸어 오시며…』 그리고 그가 받은 훈장 경력이 길게 소개됐다. 「대공경찰의 대부」라는 그에대한 경찰 내부의 평가도 인용됐다.

그러나 참석자들의 표정은 한결같이 어둡고 무거웠다. 朴치안감 자신도 가끔 이마의 땀을 씻어낼뿐 무표정했다.

장내를 누르고있는 무거움의정체는 趙鍾奭치안본부장의 다음과 같은 말을 잊고 마는가 본다.』

잠시후 朴치안감의 손에 내무장관이 주는 「경찰 1등급 공로장」과 꽃다발, 후배경찰이 주는 기념품이 전달된뒤 식은 끝났다.

그러나 이른바 「朴鍾哲커넥션」과 관련, 현직에 남아있던 마지막 경찰관의 퇴임순간은 분명히 결보기처럼 화려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지금 1심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판결을받은뒤 이에 항소, 다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金民堉·사회부기자〉

朴치안감의 정년퇴임식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 조작 관련자

검찰수사·재판기록 조사

고 박종철씨 추모사업회가 국가와 박씨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2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담당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30분 이사건 관련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수사기록 및 재판기록에 대한 서증조사를 벌였다. 1988. 7. 16

원고 쪽 대리인인 황인철 변호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조사에서는 현재 형이 확정돼 관련기록이 검찰 기록관리과에 보관중인 조한경 전 경위 등 박씨 고문치사사건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기록과 현재 서울고법 형사 1부에 계류중인 박처원 전 치안감 등 은폐조작사건 관련피고인 3명에대한 기록,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에 대한 범인도피 등 사건기록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원고 쪽은 관련기록 모두에 대한 복사를 요청, 다음 공판에서 증거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에는 박씨의 부모와 가족을 비롯, 고문피해자 가족 및 양심수 관련단체 대표 등 모두 41명이 원고로 참가하며 조한경 전 경위 등 고문사건 관련 경찰관 이외에 장세동 전 안기부장, 이해구 전 안기부 차장, 김종호 전 내무부장관, 서동권 전 검찰총장, 박봉식 전 서울대 총장 등 모두 28명이 피고로 되어 있다.

이날 서증조사를 통해 박씨 고문치사사건에 대한 경찰조직 내부에서의 은폐조작 사실이 외부에 명백히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을 은폐조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아직 진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고 있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활동과 책임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차공판은 2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종철씨 고문치사
배상소송 3차공판

경향 1988. 7. 28

고 박종철씨 추모사업회가 국가와 박씨고문 치사사건 관련자 28명을 상대로 낸 2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3차 공판이 27일 오전 10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당시 박씨의 하숙집 주인이던 임정숙씨 등 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씨쪽 변호인인 황인철 이석태 변호사 등은 이날 박씨에 대한 정확한 연행시각을 밝혀내기 위해 임씨 이외에 박씨와 같은 하숙집에 살던 하종문씨, 박씨가 숨지기 전날밤 술을 마셨던 박명진씨와 신상민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 모두 받아들여졌다.

연행시간 증언 청취
박종철씨 손해배상 소송

경향

'박종철열사 추모사업회'가 국가와 박씨 고문치사사건 관련자 28명을 상대로 낸 2억8천여 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4차공판이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서울민사지법 합의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원고 쪽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벌였다.

박씨의 친구 박명진(23·서울대 언어학과)씨는 신문을 통해 "사건 당일인 87년 1월14일 새벽 1시께 하숙집주인으로부터 '종철이가 밤 12시께 성적표를 갖다놓고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 뒤 종철이의 하숙집주인을 비롯 아무도 그를 보았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원고 쪽의 황인철 변호사는 이와 관련 "경찰은 사건당시 박씨가 14일 오전 7시30분께 연행된 것으로 발표했으나 증인들의 증언과 여러 정황으로 미뤄 14일 새벽1시 이전에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988. 9. 01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의 원인이 됐던 박종운씨(왼쪽)는 21일 수배해제 발표가 난 뒤 처음으로 박종철씨 가족을 만났다. 〈진정영 기자〉

"어머니" "네가 종운이냐. 고생 많았지"

1988.12. 2 박종철씨 가족, 수배해제 박종운씨와 첫 대면

"어머니!"

"네가 종운이냐.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고생이 많았지."

2년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당시 21·서울대 언어3)의 어머니 정차순(55)씨와 종철이의 서클 선배이자 종철이가 죽어가면서 소재를 추궁당했던 장본인 박종운(27)씨. 이들의 운명적인 첫 만남은 이렇게 시작됐고 두 사람 다 감정이 북받친 듯 두손을 꼭 잡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서울대 민추위사건으로 4년가까이 수배를 받아오다 21일 수배해제된 박씨는 이날밤 10시께 종철이의 어머니 정씨와 아버지 박정기(59)씨, 누나 은숙(26)씨 등을 만나 머리를 숙였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만나면 영영 울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앞으로 저를 친자식이라 생각하시고…."

"네 마음이 오죽했겠나. 우리 가족은 지금까지 너를 원망해본 적이 손톱만큼도 없다."

정씨는 오히려 종운씨의 건강을 걱정하고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기에 바빴다.

종철이가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지기 6일전인 지난해 1월8일 밤 종운씨는 종철이의 신림동 하숙방을 찾아가 잠시 머물다 나왔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거처를 알리지 않는 것이 수배자의 불문율이지만 정이 많은 종철이가 "형, 고생 많지. 어떻게 살아"하면서 하도 걱정하는 바람에 "독서실에서 지낸다"고 한마디 던진 것이 단서가 되어 종철이가 거처를 알고 있다고 여긴 고문자들을 미처 날뛰게 했고 이것이 종철이를 죽게 만들었다고 종운씨는 회한의 눈물을 뿌렸다.

그날 종철이는 누나가 만들어 준 털목도리를 대문을 나서는 종운씨의 목에 감아주었다. 그리고 다음날 부산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어 목도리를 잃어버렸으니 하나 더 보내달라고 어리광을 부렸다. 목도리를 짜던 중에 동생의 죽음을 전해 들은 은숙씨는 '미완성의 목도리'를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며 눈에 가득찬 눈물을 떨구지 않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다.

신문과 수배전단의 사진으로만 얼굴을 대하던 이들. 종운씨는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죽은 지 이틀만에 신문을 보고 믿어지지 않았읍니다. 아버지께서 임진강에 재를 뿌렸다는 것도 알았고요." 종운씨는 죄책감에 당장 뛰쳐나오고 싶었지만 오히려 투쟁의지가 되살아나 지금까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싸울 수 있었다고 했다.

"가만히 누워 있으면 설움이 북받치기도 하고, 한편으론 시대를 잘못 타고난 죄려니 하고…." 정씨가 말을 잇지 못하고 참았던 눈물을 떨구었다. "내가 종운이 앞에서 안 운다고 그렇게 다짐했는데…." 종운씨가 정씨의 두손을 다시 꼬옥 잡았다.

"나 이젠 안 운다. 내가 왜 그때 철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무라기만 했는지 모르겠어. 철이는 네가 자기 몫까지 해줄 것으로 믿었겠지."

"예, 어머니. 철이나 저나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도 안돼 맘 놓고 울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들의 대화는 자정이 다 되도록 그칠줄 몰랐다. 아버지 박정기씨는 무덤도 없이 한줌의 재로 강물에 뿌려진 아들에게 죄

"저 때문에 종철이가…"손잡고 사죄
"악의 시대 탓…너희가 모두 내아들"

를 지은 것 같아 지난해 종철이의 49재를 맞아 거행된 '3·3 민주화 대행진' 2주년인 내년 3월 3일 종철이가 생전에 마음의 지주로 삼았던 전태일열사 묘지 근처에 가묘를 만들고 초혼장을 치를 예정이라고 했다.

이들 새로 맺어진 '어머니와 아들'은 날이 밝으면 종철이의 넋이 떠내려간 임진강을 함께 찾기로 약속한뒤 다시한번 손을 포개잡고 '시대의 아픔'을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였다. "어머니, 꿋꿋하게 마음먹으세요. 저희가 꼭 좋은 세상을 만들께요." "그래, 전에는 아들을 잃은 슬픔이 컸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모두 내 아들이니 하나도 외롭지 않구나."

〈유종필 기자〉

박종철 열사 2주기를 맞아 서울대 노래모임인 '메아리' 회원들이 추모가 '벗이여, 해방이 온다'를 부르고 있다. 〈김선규 기자〉

고문수사기관·악법 폐지요구

1989. 1. 14

서울대 총학생회 박종철씨 추모대회

서울대생, 의문사유가족협의회 회원 및 구로지역에서 파업농성중인 노조원 등 5백여명은 박종철씨 고문치사 2주기를 맞아 13일 오후 2시 서울대 학생회관 2층 라운지에서 '고 박종철 열사 2주기 추모 및 고문학살정권 퇴진 결의대회'를 갖고 "고문도구인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의 해체와 고문 살인범을 비호하는 노태우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박 열사를 죽음으로 몰아간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등 폭력 살인기구들과 그 법적 토대인 국가보안법, 집시법 등 악법들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박 열사를 비롯한 숱한 은폐·조작된 죽음의 진상이 밝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이근안 경감 같은 고문 범죄자들의 도피가 방기되고 있는 현실은 현 6공화국이 학살고문 정권인 5공화국의 쌍생아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최근 노태우 정권이 '공권력 수호'를 이유로 민주인사를 탄압하고 파업중인 노동자들을 무더기로 구속·수배하는 현실은 또다시 박 열사 경우와 같은 고문치사 및 의문사를 우려케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박 열사의 죽음을 은폐·조작하려 한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씨 등 '관계기관 대책회의'와 당시 민정당 사무총장 이춘구씨 등 '당정협의회'의 주범들이 지금도 6공화국 권력의 핵심에 있거나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며 △국보법·집시법 등 모든 파쇼악법 철폐 △보안사, 안기부, 치안본부 등 고문학살도구 해체 △국회특위를 통한 의문사 진상규명 △이근안 경감등 고문 범죄자들의 즉각 구속 등을 요구했다.

민주화와 통일의 거름으로 부활하라

1989. 1. 14 박종철 열사의 순국 2주기에

박종철! 그가 스물한살의 꽃다운 젊음을 "한뼘의 무덤조차 없이 얼어붙은 강의 눈바람 속으로 날려보낸"지도 벌써 2년이다. 그 악명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그가 고문을 받다 죽음을 당했다는 보도를 보고 그의 벗들, 자식을 둔 부모들, 제자를 가르치는 스승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은 분노하고 통곡했다.

박종철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이 사회를 뒤덮고 있는 짙은 어둠과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억누르는 군사독재정권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었다. 그 사건 직후 정부는 "인권특위를 만들겠다" "경찰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하겠다" "인권존중대회를 열겠다"고 선전했지만, 그 뒷전에서는 그 사건에 대한 은폐와 조작이 계속 자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떤 음모도 들불처럼 번지는 국민대중의 분노를 재울 수 없었다. '2·7 추도집회' '3·3 추도시위'로 이어진 박종철 열사 추모의 행렬은 경찰력을 모두 동원해도 막을 길이 없었다. 87년의 6월 대항쟁에서 절정에 이른 그 거대한 흐름은 마침내 전두환 독재정권을 벼랑으로 몰고갔고, 궁지에 몰린 정권은 '6·29 선언'이라는 항복문서로 위기를 벗어났다.

그리하여 '6·29'를 만든 정당이라고 선전하는 민정당과 '6·29'의 주역을 자임하는 대통령이 집권한 제6공화국이 세워졌다. 오늘날 정부와 여당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면서 걸핏하면 내세우는 '6·29 선언'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그들을 파탄 한 걸음 전까지 몰고 갔던 박종철씨의 죽음이 남긴, 피의 '인권헌장'이다. 그것은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온 국민의 요구에 대한 항복선언이며 공약이었다.

그런데 박종철씨가 순국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의 인권상황은 어떤가? 그 부모의 피멍이 든 가슴에는 지금도 온기가 돌지 않고 고문치사의 진상은 아직도 안개속에 가려져 있다. 고문을 은폐하는 데 앞장서거나 사건을 축소조작한 책임자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6·29'의 항복문서에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국민의 인권은 탄압받았고 '국법질서의 수호'라는 탈을 쓴 극우 총궐기의 목소리가 요란하다. '6·29'의 당사자인 노 대통령은 요즈음 기회있을 때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친다. 어떤 국민이 국가의 법질서가 지켜지고 자유민주주의가 번성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그 법질서의 근본과 자유민주주의의 기초는 무엇인가? 바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인권이다. 노동자와 학생과 진보적 지식인을 좌경 급진세력으로 몰아붙여 적대시하고 억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될 수는 없다. 그들은 어느 나라의 국민이며 누구의 형제들인가?

진정으로 국법질서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우려는 공권력과 그 담당자들은 국민을 하늘같이 알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겠다는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정부와 여당이 할 일이 있다면, 박종철씨를 죽인 바로 그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관절꺾기'와 전기고문을 전문으로 했다는 이근안씨와 그 일당을 잡아들이고 그런 자들이 고문으로 조작한 수많은 사건들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는 일이다. 그리고 무지막지한 고문으로 골병이 들어 후유증을 앓는 피해자들에 대해 보상과 위로를 하는 일이다.

고문으로 만든 '증거'를 배척하고 수사과정에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보완해야 한다. 지난날 인권을 침해하고 고문을 자행한 기구들을 해체·개선하는 노력도 아울러 있어야 한다.

두해 전에 박종철 열사의 죽음을 슬퍼했던 국민은 그의 2주기를 맞아 그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온 국민은 그 처절한 순국이 민주화와 민족통일의 거름이 되기를, 그 젊은이가 고문도 양심수도 없는 세상에 부활하기를 뜨겁게 기원할 것이다.

窓

1989. 1. 14 동아

308.

2년만에 빛본 추도사

朴鍾哲 2주기…그때 못실린 교수의글 낭독

13일 오후2시 서울대 학생회관2층 라운지. 왼쪽가슴에 검은 리본을 단 학생 교수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원등 5백여명이 모여 지난 87년1월14일 南營洞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고문끝에 숨진 고朴鍾哲군의 2주기추모식을 갖고 있었다.

추모식장 전면중앙에 朴군의 대형영정과 노란 국화화환이 놓여졌고 학생회관 건물밖으로는 태극기와 검은천이 길게 드리워져 숙연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 朴군의 어머니 鄭且順씨와 누나 銀淑씨가 朴군 49재를 맞아 암자에서 종을 치며 오열하는 모습의 사진과 추모집회도중 수녀와 전경들이 대치하는 장면등 朴군의 고문치사에서 6월항쟁까지 이어지는 5共말기의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들이 라운지입구에 전시돼 당시의 질식할듯한 사회분위기를 전달하고 있었다.

민중의례가 끝나자 「벗이여 해방이 온다」의 비장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車敬美양(22·국어교육과3년)이 낭랑한 목소리로 추도시를 낭독했다.

「죽어 시체 빼앗겨 화장되어/그 뼛가루/분단의 임진강 한 줄기에 뿌려져 흘러갔다/네 이름 박종철/이 땅 가득히 피어난 여사의 꽃이여…」

이어 사회학과 金晋均교수는 추도사를 통해 「朴군사건직후 대학신문의 원고청탁을 받아 朴군의 죽음을 애도하는 글을 기고했으나 실리지 못했었다」며 당시의 기고문을 낭독했다.

「어린 벗이 고문은 왜놈들이나 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을때 대답할 말이 없어 무척이나 부끄러웠다…」

「우리는…불사라진 죽음과 맞아죽음이, 그 원인이 학교 밖에 많이 있다고 치더라도 우리에게 그 죄업이 없다고 말할 것인가…」

「朴군의 죽음은 마치 봄에 피는 백목련이 그 고결한 자태를 잠시 보여주고 무성한 잎을 돋우기 위해 흩는 봄바람 따라 조용히 스쳐가는 것과 같다. 학교안의 일깨워지는 양심에 우리는 더많은 신뢰를 두고 우리의 소망을 키우고자 한다. 朴군은 그것을 위해 죽었고 그것을 위해 살아났다고 하자」

이날 추모식장에는 5共시절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崔佑赫 申虎樹 禹宗元군등의 유가족 10여명이 「의문사 진상규명」등의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나와 비탄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난85년 경부선 철로변에서 변사체로 발견된 서울대생 禹宗元군(당시23세)의 어머니 李桂南씨(55)는 「鍾哲이나 宗元이를 숨지게한 잔악한 범죄의 실상은 기필코 밝혀져야한다」며 눈물을 떨구었다.

또 다른 한 유가족도 「李根安경감과 같은 파렴치한 고문범죄자들이 구속처벌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2 제3의 朴鍾哲을 눈물로 떠나보내야할 것」이라며 흐느꼈다.

〈權純活기자〉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이뤄야

1989. 1. 17 박종철씨 2주기 - 연행 원인제공자 박종운씨의 애도〈3〉

죽음으로 지킨 동지애 박종철씨 2주기

연행의 원인제공자 박종운씨의 애도사 〈1〉

14일은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박종철씨의 2주기. 박씨 연행의 원인 제공자(?)였기에 남다른 고뇌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던 선배 박종운씨는 또 다른 감회로 이날을 맞는다. 박종운씨가 '박종철씨를 애도 하는 글'을 3회에 나누어 싣는다. 〈편집자〉

종철이가 잔인무도한 무뢰배에 의해 원통하게 숨진 날로부터 이제 2년, 나는 그간 4년여에 걸친 '수배-도피-비밀 활동' 속에서 마지막 2년을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다. 종철이의 죽음은 그만큼 나를 나약한 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나락으로 밀어 넣기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경찰들의 만행에 대한 치떨리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타게도 했다. 그러나 온갖 종류의 심적 갈등 속에서도 내가 취할 수 있었던 것은, 도망다니면서이긴 하지만 종철이의 몫까지 포함해서 가일층 민주화투쟁에 매진하는 일뿐이었다. 종철이는 동지를 지켜내어 동지가 끝까지 투쟁할 수 있도록 하자고 살인적 고문 앞에서도 몇번이나 다짐했을 것이고, 또 죽음을 무릅쓰기까지 했으니까…. 어쨌든 종철이가 죽음으로 지켜낸 결과 나는 지명수배 사진을 아무리 크게 내걸어도 잡힐 수 없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서 수배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민주화투쟁을 계속하게 되었다.

나는 종철이가 잔인무도한 군부 독재정권의 하수인들에 의해 단지 젊음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던 점만이 기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종철이는 민중운동의 발전에 학생운동적 차원의 기여를 하다가 삶을 꺾이었던 것이고 동시에 자기의 동지와 조직을 보위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하다가 불행을 당한 것이기 때문이다.

동지애와 관련하여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사실 내가 87년 1월8일 종철이의 하숙집을 찾아갔던 건 긴한 연락을 위해서였다.

87년 1월4일까지 노동자해방투쟁동맹(소위 CA그룹)의 중앙위원들이 남산에 있는 국가안전기획부에 영장없는 불법연행을 당하였다. 그 상태에서 가까스로 불법연행의 위기를 모면한 나는 당연히 공동의 대의를 위해 함께 싸워왔던 조직을 재건하고 더 큰 규모의 투쟁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하기로 하였다.

우선 나는 스스로를 조직의 다른 부분에 있는 동지와 연결하는 일에 나섰다. 중앙위원들이 연행된 이후 나는 거처를 시내 모처에 있는 독서실에 정하고 나서 그 궁리를 계속 하였다. 마침 종철이를 통해서 연락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고 종철이의 하숙집에 찾아갔다. 종철이는 선선히 그 일을 해주었다.

와해위기 CA 연락책 기꺼이 맡아
혹독한 고문에도 끝내 단서 안밝혀

물론 내가 종철이에게 시시콜콜 사정을 설명한 것은 아니었으나-따라서 사정을 잘 모르기는 했지만-나와의 관계 일체를 추궁하는 독사같은 무리들에게는 그 행위가 추적의 유력한 단서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철이는 불굴의 의지와 신념으로 그것을 지켜내었다. 모진 매와 거듭되는 물고문·전기고문 앞에서도 의연했던 것이다. 종철이는 스스로가 민중의 이해와 함께 하려고 했고 대의에 충실하려고 했을 뿐 아니라 동지를 아낄 줄 알고 또 그것을 극한 상황에서조차 몸소 실천했다.

사실 정보경찰들은 이미 86년 11월 중순부터 종철이를 찾으면 나를 찾을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장기매복해 있었다. 그러나 1월13일까지 내가 전혀 나타나지 않자 데려다 족칠 요량을 세운 것 같다. 정보경찰들은, 내가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이고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방문하였기 때문에, 장기매복에도 불구하고 방문 사실조차 종철이 연행시까지는 감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같이 불법·무법·권력형 폭력이 판을 치는 데서는 구태여 치밀한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아무 뒤탈이 없으니까 데려다 족치면 그만인 것이다. 김근태 선배, 권인숙씨의 고문사실 폭로에도 오리발만 내밀면 됐었으니까.

어쨌든 구체적 단서가 없는 한 모진 매에도 종철이는 잘 버텼다. 그러나 옆방 하숙생이었던 하종문이까지 데려와서 족친 뒤 하종문이가 나의 방문사실·행동거지·종철이와 밀접한 연락이 있는 듯 하다는 등의 발설을 하게 되면서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고문자들이 발광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종철이는 의연했다. 보통사람 같으면 굴복하여 1월8일 내가 부탁했던 바를 불기도 했으련만은 종철이는 끝내 그 사실을 사수했다.

그것을 발설하면 조직은 더 큰 규모로 깨지고 동지들은 더 큰 희생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종철이는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종철이는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림으로써 운동과 민중을 살리려고 하였다. (이 기회를 빌어 나는 하종문씨에게 사과를 겸하여 정보경찰의 고문 내용에 대해 양심선언을 할 것을 촉구하고 싶다. 그는 눈으로 보진 못했지만 종철이가 전기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건후 치안본부는 무시무시한 압력으로 그의 증언을 막는가 하면 그의 일본 유학을 서둘러 추진, 격리시킴으로써 인간성을 최후까지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다)

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쉬운 종철이의 죽음에 대해서 이러한 새로운 측면을 알림으로써 우리가 종철이의 불굴의 투쟁정신·동지애·의리를 모두 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종철이는 어느 교과서, 어느 원칙들을 통해서도 배우기 힘든 바를 몸소 해냈다. 정보경찰의 악독함도 잊어서는 안되지만, 어쩌면 우리나라와 같이 불법·무법·권력형 폭력이 판치는 나라에서는 정도가 '약간' 더 심했던 '사례'로 치부될 수도 있다. 그러나 종철이의 불굴의 투쟁정신과 동지애는 모든 존재하는 정견의 차이를 떠나서 모두가 본받지 않으면 안되는 돋보이는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마침 오늘 우리는 최근 석방·수배해제된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과 함께 종철이에 대한 추모와 함께 그의 불굴의 투쟁정신을 계승하고, 노태우 정권의 퇴진 결의로 모아나가는 모임을 갖고자 한다.(명동성당 오후 5시)

이 작은 모임이 종철이를 기억하는 온 국민과 민주인사들이 작금의 분열을 극복하고 통일단결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서는 계기가 되었으면 여한이 없겠다. 민주주의를 하려다가 견해차 때문에 생긴 감정이 있다 해도 그것은 적에 대한 것보다는 결코 크지 않다.

"나 때문에…" 자책과 분노에 떨어

1989. 1. 15 3·8·5

박종철씨 2주기…연행 원인제공자 박종운씨의 애도 〈2〉

나는 종철이의 죽음 소식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독서실에서 아침 일찍 일어난 17일은 그날따라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비를 맞은 채 단골로 밥을 사먹던 허름한 식당에 들어가서 무심코 그 전날 저녁신문을 펼쳐들었다. 그러다가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소설같은 이야기의 뒤에 나를 찾다가 그리 되었다는 기사에 뒤통수를 쇠몽둥이로 후리쳐 맞은 듯 갑자기 멍한 느낌이었다. 전신에 식은 땀이 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 잔인무도한 놈들, 끓어오르는 분노로 전신이 부들부들 떨려 왔다. 아니 그럴리가 없다. 사람이 탁치니 억하고 죽다니, 또 설사 그렇다쳐도 나 때문에 죽다니. 내 이름은 오보일 것이다. 오보여야 한다. 이렇게 머리 속에는 천 갈래 만 갈래의 생각이 오락가락했고 나는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만을 끄집어내려고, 아니 그것만을 생각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러나 떨리는 손 파리한 입술로 몇번을 다시 읽어보아도 신문은 마냥 변할 줄 몰랐다. 이때처럼 고정된 신문활자가 미워보인 적은 없었다.

식당을 나와 얼른 대로변에 가서 조간신문을 사 보았다. 그리고 포기하였다. 회피하려는 생각과 기대를 '나는 아닐 것이다'가 아니라 '나 때문' 이었다. 조간신문은 '나 때문에' 종철이가 죽게 되었다고 그부분만 반복되어 있는 듯했고 모든 활자는 서로 모여 커다랗게 쓰고 있었다. 종운이 너 때문에…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몇년동안 아무리 강철같은 인간으로 단련하고 민중의 이해를 목숨바쳐 수호하여 싸우겠다고 다짐 했었지만, 종철이의 죽음 앞에서 나는 여전히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다.

나는 나도 모르게 또 다시 핑계를 찾고 있었다. 종철이는 나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광주학살도 태연히 자행한 흉악무도한 살인마들의 지시를 받은 하수인이 '실수해서'죽인 것이다. 나를 지켜내다 죽을 '필연성'은 없다. 종철이는 우선 내 거처를 모른다.

둘째로 종철이는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미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나의 과거, 독서실 거처 등)을 이야기 했다(그 당시까지만 해도 종철이는 내가 부탁했던 일을 선선히 들어준 것에 대해서는 사수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게다가 하종문이가 종철이와 하숙집에서 했던 이야기와 나를 직접 본 것을 모두 이야기해서 종철이가 오히려 궁지에 몰려있었다는 것을 당시로서는 알 까닭이 없었다). 그러니 '필연성'이 없는 만큼 책임도 없다.

신문논조는 나의 이 회피심리와 정권의 극악성에 대한 분노가 어우러진 마음의 수준 그대로였다. 신문논조와 같은 수준의 생각을 '가지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사실'을 변경시킬 수가 없었다.

나를 거듭나게 만든 '털목도리 온정'
그 따스한 마음이 죽임의 이유라니

시간이 지나면서 비로소 나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종철이는 수배자와 관련되어 있는 한 죽음의 위험에 '필연적'으로 놓여있는 것이다. 수배자를 잡으려다 성고문까지 자행한 문귀동이와 같은 경찰 앞에서는 우리의 권인숙이가 받은 엄청난 시련이 그 위험을 이미 실증 또는 예고해 주고 있지 않은가. 수배자나 민중의 정치지도자가 국보법 등으로 심지어 사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한 또한 고문, 고문살인은 그 연장선상의 것으로서 필연적이다.

내가 책임을 느끼지 시작하자 비로소 모든 것이 제대로 보였다. 내가 종철이에게 나쁜 짓을 했기때문에 느껴야 하는 그런 책임과는 질이 다른 것이다. 종철이가 아니래도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대해주는 한 누구라도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내가 아닌 누구더라도 적들이 집요하게 추적하는 한 그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종철이는 나에게 동지적 애정을 쏟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죽기에 족한 것이 우리나라의 파쇼통치였다. 내가 느껴야 하는 책임은 종철이에게서 입은 은혜인 동지적 우애를 잊지않고 그의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하는 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책임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하면서, 종철이가 살인적 고문 앞에서도 얼마나 의연했고 꿋꿋했는가, 얼마나 훌륭하게 적과 싸웠는가도 듣게 되었고, 다른 친구가 시종 그런 종철이를 궁지에 몰아 넣었음을 알게 되었다. 종철이에 대한 동지적 신뢰도 엄청나게 증대되고 동지적 존경심이 생겨났다. 종철이가 지향했던 겨레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자주화는 우리들 사이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그 자체 뼈대만 앙상하게 보이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민중에 대한 끊임없이 샘솟는 사랑, 동지에 대한 끝간 데 없는 믿음과 의리로 감싸져 있는 것임을 알게됐다. 따스한 피가 흐르고 온정과 우애가 넘치는 운동가, 그러면서도 적에게는 한치의 글종도 양보도 없는 운동가, 종철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봄날의 햇볕같이 따스한 종철이의 마음을 몸소 읽을 수 있는 경험까지 했다.

1월8일, 방학중에 마침 돈도 없는 때에 종철이는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자 전혀 개의치 않고 하종문이에게 1만원을 직접 꾸어서 미안해하는 나의 손에 꼭 쥐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가증스러운 흉물 치안본부장 이영창의 말이 아니래도 그 돈 1만원은 내게 있어서 일억원이나 진배 없었다. 또한 독서실에서 슬리핑백(침낭) 속에 들어가서 오돌오돌 떨면서 잔다는 말을 듣고 괜찮다는 사양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에 걸고 있던 누나가 짜 준 털목도리를 벗어서 내 목에 감아주기까지 했다. 그리고 (나중에 철아 누나에게 확인해보니) 종철이는 털목도리를 분실했다고 다시 떠달라고 어리광(?)을 부릴 줄 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나는 아직도 종철이가 감아준 그 털목도리의 따스함을 잊지못한다.

나는 지금 종철이 덕분에 다시 태어난 것이나 다름없다. 나는 종철이의 온정과 우애, 강인함과 비타협성을 동시에 본받으려 하고 있다. 이전의 경직됐던 태도나 소영웅주의적 태도도 불식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민주와 통일을 위한 운동에서 철이 몫까지 포함하여 여러 몫을 하려 하고, 철이 어머님 아버님에게까지 철이 대신 조금이나마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계 속)

못다 이룬 꿈 우리가 이뤄야

1989. 1. 17 박종철씨 2주기…연행 원인제공자 박종운씨의 애도〈3〉

민중 생존권 옹호에 불굴의 투지
옳은 일이면 자기뜻 절대 안굽혀

85년4월, 2학년이 된 종철이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담긴 편지를 집으로 보냈다.

"저는 항상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고 있읍니다. 자기 생활에 만족하면서 성실하게 또 보람있게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언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판단되는 일에는 항상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나가겠읍니다."

이미 종철이는 자신의 삶의 방향을 단호하게 정립하고 있었다.

고문 사망의 비극을 맞이한 겨울방학 기간에 그는 일어공부를 한다는 핑계로 서울에 남아 있었다. 86년 아시안게임 직후부터 운동권 탄압과 민주인사 고문이 기승을 부리던 시절에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다.

내가 1월8일 종철이의 하숙집에 찾아갔을 때 그는 집에 없었다.

그는 김길오라는 친구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던 것이다. 그만큼 종철이는 몇개월간의 옥중생활을 마친 후 스스로 더욱 운동과 동지들에 관심을 기울였다. 주인없는 방에서 혼자 기다리던 나는 종철이의 책상에서 각종 운동권 기관지를 발견하고 종철이가 깊이 그것들을 연구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다. 후배가 끊임없이 연구·정진하며 불굴의 투지를 다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본 나로서는 여간 흐뭇하지 않았다.

속칭 '도발이'(도피생활자) 3년째에 마냥 같이 일하던 친구들에게서 느끼던 바와는 약간 다른, 신선함이 가득찬 노력이 나에게는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왔다.

특히 당시에는 겨레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자주화를 가능한 한 빨리 이루도록 하기 위해 그 지침이 될 올바른 이론을 찾아내기 위해서 운동권 전체적으로 논의에 논의를 거듭하고 있었으므로, 맹목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이 더할 나위없이 흡족했던 것이다.

얼마 후에 철이가 돌아왔다. 종철이는 길오의 재판 광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그 당당하고 기세를 굽히지 않는 광경에 감동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얼마전 누나가 학교에서 벌어진 데모에 참가하고 이른바 '데모노래'도 배웠다면서 집안이 점차 민주적 가족으로 되어간다는 사실에 즐거워했다. 그처럼 철이는 스스로 온정과 우애가 넘치며 또 이론적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신중성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의 실천과 변화로부터 끊임없이 고무되고 또 고로부터 배워나갈줄 아는 그런 애였다.

종철이는 이러한 모든 행동을 남을 따라가면서 마지 못해 한 것이 아니라 주체적·선도적으로 했으며, 이땅의 민중형제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고통스러운 현실의 아픔을 같이 나누려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행동으로서 한 것이다.

종철이는 대학생들이 우리 현실을 배우기 위해 추진하던 매년 여름의 농촌활동, 매년 겨울의 공장활동에 선뜻선뜻 참여하였다.

종철이가 경찰에게 잡혀서 몇개월간 옥중에 있었던 계기는 86년 4월경 청계피복노조 합법성 쟁취대회 때였을 것이다. 종철이는 평소부터 노동자의 영원한 벗 전태일 동지를 존경해 왔으며, 노조의 자유로운 결성을 방해하며 극도로 열악한 작업환경과 임금조건, 인간적 멸시 상태를 유지하려는 정권의 간악한 기도에 맞서서 노학 연대투쟁을 전개하는 것을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그날도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철저히 투쟁했다고 한다. 그리고 아깝게도 그 끝에 체포된 것이다.

종철이는 민중 형제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고통의 공유가 단지 자신과는 관계없는 대중에만 향해진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의 가족들도 자각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나는 종철이의 죽음이 공허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직접적인 죽음의 실마리는 나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정을 준 '죄'였지만, 크게 보아서는 종철이가 이땅 민중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싸워나가는 삶을 선택한 '죄'때문이었다.

나와 같은 지명수배자를 포함하여 모든 민주화 투쟁을 하는 인사들은 항상 극악무도한 미제국주의와 군사독재 정권 앞에서는 민중생존권을 옹호하고 겨레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자주화를 추구한다는 이유만으로도 투옥과 고문·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다.

종철이의 편지 구절은 나의 가슴을 때린다.

"아버지, 어머니, 가난하고 어려운 생활은 결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땅의 잘못된 정치·경제적 구조가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입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가난한 국민들도 어깨펴고 살 날이 옵니다.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갑시다."

아직도 울산에서는 노동자 테러가 횡행하고, 이근안 경감 등 많은 고문기술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

이 어이없는 현실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온 국민은 자각된 대중으로 조직되어 단호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철이가 못 다 이룬 꿈을 이룰수 있을 것이다. 〈끝〉

렌트카의 명문 삼보렌트카
National Car Rental NIPPON Rent-A-Car
예약안내 영업부 797-5711
강 남 552-5711

14일 명동성당서 열린 박종철씨 2주기 추모식에서 재야인사 학생 등 5천여명은 박씨의 뜻을 이어 민족해방투쟁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종찬 기자〉

박종철씨 2주기 추모식 5천여명 참가

1989. 1. 13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의 2주기를 맞아 '민주열사 박종철 2주기 추모 및 노태우 정권퇴진 결의대회'가 14일 오후 6시 박씨의 가족과 재야인사 학생 등 5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중구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엄수됐다.

박종철 추모사업회 준비위(위원장 황인철 변호사)와 서울지역 총학생회연합이 공동주최한 이날 추모식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족민주운동세력은 일치단결해 민족해방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 것을 선열 앞에서 엄숙히 결의한다"며 △국가보안법 철폐 △안기부·보안사·치안본부대공분실 해체 등을 주장했다.

추모식은 황인철 추모회준비위원장의 인사와 신경림 시인의 추모시 및 박씨 사망 당시 수배중이었던 선배 박종운씨의 추모사, 투쟁결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집회가 끝난 뒤 횃불 50여개를 앞세우고 검찰청사까지 평화행진을 벌이려고 성당문을 나섰으나 경찰의 저지를 받아 30분동안 명동거리에서 노래와 구호를 외치며 맞서다가 오후 9시께 성당안으로 돌아갔다.

특집 / 고문치사 박종철 '죽음과 부활' 2주기…"결코 죽음을 헛되지 않게"

민주화의 굽이마다 넋으로 살아

1989. 1. 15 평화

1987년 1월14일, 남영동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박종철군은 고문끝에 죽어서야 나왔다. 그의 죽음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럴 수가…'하는 한탄과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세력은 물리력을 통한 원천봉쇄로 박종철군 죽음의 의미를 확인하고자하는 국민들의 항의를 막았고 물리적 힘이 주효했다고 판단하자 시대적 흐름을 망각한 4.13호헌조치로까지 치달았다. 이때 박종철군 고문살인사건의 은폐조작사실이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의하여 밝혀졌다. 밝혀진 공권력의 부도덕성을 보고 '이럴 수는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것이 장엄한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되었다.

오늘 우리가 이나마 민주화를 말할 수 있게 되고, 통일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까지에는 박종철군의 죽음과 그 부활이 커다란 몫을 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주기는 정치 속에 묻혀 그냥 지나갔다. 2주기는 그를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뜻을 합쳐 1월14일 오후 6시 명동성당 문화관에서 2주기 추모식을 거행한다고 한다. 박종철군 죽음의 의미를 오늘에 새삼스럽게 확인해야 할 책무를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다. 이에 전민련 준비위 사무처장 이부영씨의 추도사와 시인 신경림씨의 추모시와 함께, 그의 누나와 박종운군의 박종철군의 영전에 바치는 편지를 싣는다. 박종철군은 수배중인 선배 박종운군의 소재를 밝히라는 경찰의 협박성 심문을 받던 중 고문치사되었다. 그동안 박종운군은 박종철군의 죽음을 들으면서도 고달픈 수배생활을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야 했다. 따라서 그에게는 박종철군의 죽음에 대한 회한(悔恨)이 쌓여 있을 수밖에 없다.

고문치사와 은폐조작의 진실이 용기있는 사람들의 양심적 증언에 의하여 조금씩은 밝혀지고는 있으나 그때마다 일회성으로 끝나고 있다. 아직도 박종철군의 고문치사 및 은폐조작의 실체적 진실은 밝혀진 부분보다도 가려진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이 사제단을 비롯, 일반적인 판단이다. 어쩌면 그 진상이 완전히 밝혀질 수 있을 때, 진정 민주화된 세상, "그의 죽음을 결코 헛되지 않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때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부끄러움으로 그대 앞에…

추도사 이 부 영 〈전민련 준비위 사무처장〉

박종철열사의 2주기, 1989년 1월 14일을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다시 맞습니다.

무덤 한자리 없이, 임진강 어귀 어딘가 들판에 민들레 한포기로 태어나 풀꽃씨 수 천만개로 우리의 꿈을 예비하고 있을 그대에게,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고백하려고 합니다.

깨끗하고 선량한 그대를 밀실에서 갖은 고문으로 숨끊어 입다물게 만들면 세상이 고요해지리라 믿었던 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착각이었는지 우리 모두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어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대 죽어 이 나라 어머니들의 눈에서 피눈물 쏟게 하고 아버지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하였읍니다. 그리고 그대 동지 청년학생들의 주먹을 돌덩이로 만들어 입수들의 가슴팍으로 짓쳐들어가게 만들었읍니다.

87년 1월 14일, 그대의 죽음은 전두환 군부파쇼권력의 아킬레스 힘줄을 끊어버렸읍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으로 보였던 거인이 선량하고 깨끗한, 가냘픈 그대의 죽음과 부활로 비틀거리며 쓰러져 갔읍니다.

그대의 죽음은 불가능되어 파쇼가 장막 덮었던 누리의 어둠을 몰아냈읍니다. 파쇼의 어둠이 그 어둠의 무리들과의 본격적인 싸움이 한창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정작 앞에 있는 강대한 적과의 싸움에는 마음이 없고 전선 뒤에서 이삭차지 싸움에 열을 올린 저 두 자신의 두터운 변명의 집 속에 들어앉아 비웃는 군사독재를 때려부술 마음보다는 동지들의 허물 찾기에 바빴읍니다.

그리고 군사독재의 두번째 '변신술 잔치'인 국회의원 총선거를 맞아, 두동강난 겨레와 강토를 뻔히 보면서 그도 모자라 다시 이 슬픈 남녘 땅을 내 길래로 찢는 짓을 서슴지 않았읍니다. 이 치사스런 경쟁에서 의석 몇자리 더 차지했다고 희색이 만연한 사람들을 어찌 우리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반민족적이고 시대역행적인 지역감정이 크게 작용한 결과를 놓고 차라리 부끄러워하고, 통회(痛悔)해야 할 사람들이 그 결과를 회희낙낙 즐기고 있읍니다.

박종철열사의 혼이여!

> 우리는 봅니다. 패악의 무리들과 그들의 방조자들이 차지하지 못한 빈자리에 쇠못처럼 돋아나는 그대의 넋을.…다시는 속지말라는 다짐을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듣습니다.

그대의 불기둥이 몰아냈던 어둠의 무리들이 다시금 세상을 지배하듯 보입니다. 그대의 의로운 죽음이 불러일으켰던 그해 6월의 파도는 가라앉아 패악의 찌꺼기들이 다시 독한 냄새들을 풍기며 주변을 질식시키는듯 합니다.

그러나 열사이 시여!

우리는 봅니다. 패악의 무리들과 그들의 방조자들이 차지하지 못한 빈자리에 쇠못처럼 돋아나는 그대의 넋을. 저 울산 현대독점재벌이 자행하는 테러의 현장에서, 전두환 일해재단에는 수십수백억을 바치면서 노동자들은 때려 내쫓는 풍산금속·대우정밀·삼성조선 등등의 치열한 싸움마당에서, 그리고 제국주의 독점재벌 모토로라 회사의 깡패들이 쫓겨난 노동자들에게 영하의 추위속에 뿌려대는 소방호스 물세례 속에서 우리는 그대의 시퍼렇게 살아 있는 칼날을 봅니다.

우리는 봅니다, 열사이시어!

안동·임실·순창·무안 농민들의 고추더미 위로 고추처럼 매서운 뜨거움을 품고 감도는 그대의 넋을. 다시는, 다시는 패악의 무리와 그 방조자들의 반역에 속지말라는 다짐을 우리에게 거듭 확인하는 그대의 넋의, 부름을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듣습니다.

열사이시어!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 그대의 넋을 위로케하는 한해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87년 1월 26일, 명동성당에서 '박종철군 추모 및 고문추방을 위한 인권회복미사'가 봉헌되었다. 김수환 추기경은 강론을 통해 "위정자도, 국민도, 여당도, 야당도, 부모도, 교사도, 종교인도 모두 한 젊은이의 죽음 앞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2년이 지난 오늘, 과연 우리는 진심되게 괭동으로 반성했노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십만 백만 천만의 횃불이 되어

추모시 신 경 림 〈시인〉

오늘은 네가 눈감은 날이 아니다.
이 땅의 아버지 어머니들의 가슴은
아픔으로 갈기갈기 찢어졌지만
어머니들의 한숨과 눈물이
아우성으로 바뀐 날이다.
아버지들의 무력한 두 주먹이
처음으로 불끈 쥐어진 날이다.
네 꽃다운 목숨이 떨어진 날이 아니다.
몽둥이질 발길질에 네가 쓰러진 날이 아니다.
도시와 마을에 자욱하던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한 날이다.
안개 속에 묻혔던 더러운 것들 비겁한 것들
앙상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날이다.

오늘은 네가 쓰러진 날이 아니다.
우리들의 몸 속으로 피 속으로 들어와
우리 힘있음을 스스로 알게 한 날이다.
우리들의 약한 손아귀로
몽둥이와 낫을 잡는 법을 알게 한 날이다.
네 고운 모습 그 참된 목소리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 날이 아니다.
물고문 전기고문에 네 숨이 끊긴 날이 아니다.
화살이 되고 창이 되어 몸채로 통채로
원수를 향해 달려가는 법을 알게 한 날이다.
폭탄이 되어 원수의 가슴팍을
깨부수는 법을 알게 한 날이다.

오늘은 네가 멀리 가버린 날이 아니다.
그 젊던 몸이 재로 바뀌어
흘러가는 강물에 띄워진 날이 아니다.
막혔던 것이 강물처럼 터진 날이다.
갈라졌던 것 흩어졌던 것이
이어지고 한데 모여진 날이다.
네 맑은 눈이 하늘가에 잠든 날이 아니다.
힘없는 것 허약한 것들이 모여
비로소 큰 힘으로 일어선 날이다.
바람으로 강물로 온 나라를 휩쓴 날이다.

오늘은 네 몸 싸늘하게 식은 날이 아니다.
활활 하늘 높이 횃불로 타올라 세상을 밝힌 날이다.
앞장서서 달려가면서
우리 갈길을 밝힌 날이다.
이웃과 형제와 서로 어깨를 끼라고 소리친 날이다.
육천만 하나되는 그날까지
발걸음 멈추지 말라고 외친 날이다.
네가 흐느낌속에 울음속에 간 날이 아니다.
깃발도 만장도 없는 쓸쓸한 길을 간 날이 아니다.
너 돌아와 우리 몸과 하나되어
커다란 횃불로 활활 타오른 날이다.
십만 백만 천만의 횃불이 되어
돌멩이가 되어 총알이 되어 원수를 깨부순 날이다.
어둠과 눈물로 얼룩진 이 땅을
꽃과 춤으로 뒤덮은 날이다.

대의 불기등에 허겁지겁 쫓기며 뒤에 멸구고 간 '고문살인 은폐조작'은 그대로 우리들의 불화산이 되어 과쇼의 등짝에 꽂혔읍니다.

그리하여 6월의 거센 파도는 원수들을 떨게 만들고 비명지르게 하였읍니다. 저들은 '항복'이라는 말까지 내놓을 지경이었읍니다. 그대의 불기등이 이끈 그 해 6월의 파도는 서울 한복판에서, 광주·부산·대구·대전 그리고 시골의 작은 읍내거리에서까지도 끓어 올랐읍니다.

그대의 불기등을 좇은 그해 6월의 민중의 염원은 다만 한가지. 군사파쇼를 끝장내고 진정한 민선민간민주정부를 세워 자주통일로 나아갈 큰 길을 닦자는 것이었읍니다. 그런데 으레 그렇듯 투쟁의 대열 뒤를 따르면서 이삭을 줍는 데 여념이 없던 이들이 이삭 광주리를 저로 빼앗으려고 싸움질을 벌였읍니다. 그대의 불기등을 앞세운 민중전선에서는

◇1987년 3월 3일, 박종철군의 49재를 계기로 재야민주진영이 추진한 '고문추방 민주화 평화대행진'이 경찰에 의해 원천봉쇄되었다. 그러나 "누가 너를 앗아갔는가, 누가 감히 너를 죽였는가"하는 국민의 항의는 서울과 지방의 곳곳에서 처절하게 외쳐졌다.

참세상 오는날, 숨기며 삼켰던 '오열' 토할게다

내동생 철아

박 은 숙 〈고 박종철군 누이〉

내 사랑하는 철이에게,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편지를 쓰고, 너의 전화를 기다리고, 방학을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내게는 큰 즐거움이었는데…….

지금, 네가 죽었다고, 죽은 지 2년이 되었다고 추모제를 지내려 하고…….

"쟌, 내가 죽은 줄 알았지롱"하고 껑충 어디선가 나타날 것 같은데, 엄마는 언제나처럼 기다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네 이름 앞에 고(故)자를 새기니 말이다.

어느날은 하얗게 웃으면서도 자꾸 뒤걸음질 쳐가는 너를 잡으려고 아우성치다가 깨어보니 베개가 온통 젖어 있고, 내 잠꼬대에 엄마는 옆에서 울고 계셨단다. 엄마를 다시 달래주고는 돌아 누워서 입술을 깨물었다.

울음을 삼키면서 웃음을 지어내는 일은 이제는 제일 자신있는 일이 되었지. 아직 내가 위안이 되어 드려야 하는 부모님이 곁에 계시고, 꿋꿋한 모습으로 있어 주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위에 있기에 누나는 아직도 오열을 안으로 삼켜야 한다. 그리고 너를 앗아간, 감히 순결한 너의 몸에 손을 댄, 세상이 골백번 바뀌어도 용서치 못할 살인마들이 아직도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아가고 있기에 누나는 나약해질 수 없다. 그러나 문득문득 힘없이 주저앉기도 한다. 차라리 너를 만나러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단다.

철아, 너무나도 보고 싶은 우리 철아. 난 너의 모습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해 두었다가 우리 '해방이'에게 모두 얘기해 주어야겠다. 너 알고 있니? 천사같은 우리의 조카가 태어났단다. 너의 눈매를 꼭닮은 아이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하나뿐인 삼촌의 모습을 모르고 자라나고 있다. 네가 있으면 이 노래부터 가르치겠지? 다른 아이들에게도 항상 그랬듯이.

"동지들 모여서 함께 나가자, 무등산 정기가…"

그리고 해방춤도 배워주고, 응?

방학때 단 며칠씩 쉬러 오는 너에게 철아, 난 참으로 귀찮게도 굴었다. 그치? 하루온종일 옆에 붙어 있으려고 했잖아. 재잘재잘 할 이야기가 없어지면, 손이라도 잡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곤 했지. 그럴때는 귀찮다고 밀치곤 하던, 밉지않던 네 투정도 있었고 말이다. 네 머리도 감겨주고, 발도 씻어주고….

좋았던 것은 해방춤 배울때 였던 것 같다. 고고장에서는 구석에 앉아서 맥주만 축내던 네가, 그놈의 해방춤은 그렇게 멋들어지게 추더니만. 오랜만에 맛있는 것 해주고 싶어서 너를 데리고 시장에 가면 비싼 찬거리만 산다고 팔목을 억지로 끌고 오면서 들려주었던, 하루 12~13시간 노동에, 한달 12만원 받아서 방세 떼고 밥값 떼고 뭐 떼고 라면으로 끼니를 잇는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나를 무척 우울하게 만들곤 했지. 그럴양이면, 어깨를 툭치면서 '공포의 외인구단'이나 빌리러 가자고 팔짱을 꼭 끼던 너 철이였는데….

> 감히 순결한 너의 몸에 손을 댄 살인마들이 아직도 우리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고있기에 누나는 결코 나약해질 수 없다.

생각해 보면, 그때는 단지 철이 네가 해주는 이야기니까 좋아라 들었던 많은 얘기들, 일제치하에서의 독립의 몸부림들에서부터 해방 이후부터 계속되고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지난한 몸부림들까지. 기꺼이 역사를 굴리는 수레바퀴가 되겠다고 조용하게 그러나 힘주어 얘기했던 많은 것들. 이제사 하나하나 되새기면서 누나는 너의 사상과 신념을 정리해 나가고 있다.

철아, 사랑하는 철아.

어느 누구도 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집스럽게 결론 지워버린 누나는 때로는 시행착오를 되풀이 하면서도 네 뒤를 따르려는 몸짓을 계속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것이 참된 삶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어쩔 수 없는 무력함을 느끼면서 머리를 쥐어뜯다가도 네모습을 생각하면서 다시 고개를 든다. 반드시 승리하고 말리라.

철아, 나는, 너의 사랑하는 동지들은, 우리는, 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이다. 민중이 억압으로부터 해방되고, 참세상 바른 세상이 오는 날, 바로 그날에 철아, 나는 너의 혼적을 쓸어 안고 우리 전에 같이 추었던 해방춤을 추며 여태까지 안으로 안으로 숨기고 삼켰던 오열을 토해낼 수 있을 게다, 편히 쉬어라, 사랑하는 내 동생 철아.

너·나·우리 부여안고 가자

박종철 영전에

박 종 운 〈고문치사 당시 수배중이던 선배〉

한반도 모든 민중이 너나없이 잘사는 세상, 우애와 온정이 넘치고 민주주의가 활짝 꽃피는 새날, 남북이 하나로 어우러져 기쁨으로 부둥켜안는 통일된 조국, 그날을 위해 함께 싸우다 쓰러져 간 철아!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열사'라 부르지만, 너의 2주기를 맞아 다시 네 앞에 선 이 형은 아직도 너를 열사라고 부르고 싶지 않구나, 철아! 다정하고 우애넘치가 봄날의 따스한 햇볕같았던 철이를, 언제까지라도 역사속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 형의 가슴속에 꼭 간직하고만 싶다. 민주주의와 함께 너를 기억하는 온 국민의 가슴속에 행동하는 양심의 표상으로 남아 있게 하고싶다.

철아! 너의 뜻을 이어 너의 못다한 몫까지 다하고자 싸우던 이 형은 최근에야 철이 어머님·아버님·형님·누나를 찾아뵙게 되었구나. 그때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다. "우리 종철이는 온 국민의 가슴속에 부활했고, 또 조카 '병주'로 탄생했다"고. 그래, 모든 국민이, 겨레의 통일과 나라의 민주화·자주화를 향한 투쟁의 도상에 함께 서 있는 한, 그 속에서 너의 불굴의 의지와 하나가 되는 한, 너는 영원히 우리곁을 떠나지않고 힘차게 부활한 모습으로 함께 나아가는 것 아니겠니! 마치 이 땅 모든 민중의 영원한 벗인 전태일 동지 그이를 책상 앞에 모셔놓고 항상 기리며 너와 함께 했던 것처럼…….

종철아, 이땅에 반동의 광풍이 기승을 부리고 민중의 정당한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모든 몸짓이 국가보안법과 각종 악법의 된서리를 맞을 때, 너는 국가안전기획부·국군보안사령부·치안본부대공분실의 정체와 그 진짜 우두머리들의 본질을 죽음으로 폭로하였다. 국가안보라는 휘황찬란한 겉옷을 걸친 그곳들이 실상은 반민주와 폭력·살인의 복마전임을, 참된 민주주의의 보위를 짓밟기 위한 반동의 도구임을 폭로하였다.

종철아, 최근 신문에서는, 어쩌면 네게도 그 검은 손을 댔을지 모르는 전기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잠적이 보도되고 있다. 사면복권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동자를 탄압하여 마각을 드러내는 노태우정권은 이 순간도 또 다른 은폐·조작을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철아, 한번 너를 잃은 우리는 이제 더이상 속지 않는다. 이근안은 물론 모든 고문기구, 모든 폭력의 소굴을 깡그리 쓸어내버리고, 예속과 굴종의 역사, 독재와 착취의 역사, 반동과 폭압의 역사에 끝내는 종지부를 찍고야 말 것이다. 살인마들로 구성되는 정부가 아닌, 참으로 애국적이고 민주적인 인사들로 구성된 정부와 나라를 만들어 너의 못다한 뜻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

> 철아
> 한번 너를 잃은 우리는
> 이제 더는 속지 않는다.
> 참으로 애국적이고
> 민주적인 인사들로
> 구성된 정부와 나라를
> 만들어 너의 못다한
> 뜻을 기필코 이루고야
> 말것이다.

철아, 아직 완전한 민주화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우리 동지들과 국민들은 그간 철이의 뒤를 이어 열심히 싸워서 많은 진척을 이루었다. 통일의 염원이 날로 높아가는 가운데, 사실상은 통일에 반대하는 노태우정권의 잔꾀와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이 서서히 폭로되고 있으며, 폭력과 학살·부정과 비리로 점철된 5공화국의 청산을 위한 투쟁에 온 국민이 관심하고 있다. 또 노동자·농민은 미국과 독점재벌에 반대해 일어서고, 각계각층에 민주주의의 요구가 높아가고, 급기야는 소수의 반민족적·반민중적인 정치군인들에게 굴종해오던 군대내에서도 '명예선언'의 횃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어. 게다가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수십년을 분단 조국의 감방에 갇혀 있던 동지들도 다수 구출되어 속속 싸움의 대열로 복귀하고 있지.

철아, 이러한 거센 흐름을 저대한 하나의 해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금 단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분열과 그로 인한 패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새로운 통일단결의 민중적 구심점을 마련하고 있다.

철아! 철이가 어떻게 죽었는데 우리가 마냥 분열할 수만 있겠니. 민중적 중심을 확고히 하면서도 사소한 차이들을 흔쾌하게 서로 포용해야지. 그래야만 다시 우리 국민 모두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철이의 못다 이룬 꿈도 이룰수 있게 되지. 너를 죽음으로 몰고간 미제국주의와 군사정권의 철옹성을 깨부수기 위해, 이제 우리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이라는 민중적 구심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의 모든 민주적 분을 망라하여 온 국민과 함께 차게 전진할 거야.

종철아. 민주화의 급이급이 다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주는 종철아! 이제 너의 2주기를 맞아 민주승리의 엄숙한 결의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단결과 통일의 의지로 더 앞에 다시 서고자하는 우리에게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려무나. 그래서 그토록 네가 희구하던 그곳, 민중의 참 자유와 평등이 있고 갈라진 겨레가 이어지는 통일의 나라로 함께 부여안고 가자, 철아!

박종철 기념 사업회 창립

1989. 7. 28 500-1단-박종철.

추모집 출판기념회도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 창립총회 및 추모집 출판기념회가 27일 오후 6시부터 서울 마포구 도화동 18-2 서울대 동창회관 5층 강당에서 김영삼 민주당총재, 문동환 평민당부총재, 계훈제, 백기완씨 등 정계 및 재야인사와 시민·학생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참석자들은 이날 창립선언문에서 "독재정권에 온몸으로 저항하다 숨져간 박 열사의 못다 이룬 뜻을 이어받아 기념사업회는 앞으로 겨레의 통일과 민주화·자주화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기념사업회는 다음달 3일 낮 12시에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박씨의 초혼장을 치르는 것을 비롯, △기념비·기념관 건립 △매년 1월14일 추모대회 개최 △박종철인권상 제정 △각종 출판물 발간 및 강연회·심포지엄 개최 등의 기념·인권사업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백기완씨가 초대 기념사업회장으로 선출됐다.

'박종철 고문' 1차수감 경관

외부인 접견기록 없어져

500-1단-박종철관련 1989. 3. 3

"가담자 더있다" 심경변화 일으킨 기간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으로 수감중인 고문경찰관의 외부인 접견기록 일부가 없어진 사실이 밝혀져 또다른 사건은폐·조작 의혹을 낳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박종철 열사 추모사업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 합의 14부(재판장 김정수 부장판사)가 이 사건으로 복역중인 조한경(43) 피고인의 외부인 접견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4일 안양교도소 회의실에서 서증조사를 벌이던 중 밝혀졌다.

이날 조사결과 조 피고인에 대한 87년 1월19일부터 5월22일까지의 접견기록은 없어진 채 5월23일자부터 보관한다는 표시와 함께 6월2일자부터 접견기록이 붙어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접견기록이 없어진 사실은, 박씨 고문치사의 책임을 둘만이 지기로 하고 구속됐던 조한경·강진규 피고인이 지난 87년 2월 중순께부터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범인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겠다고 자신의 상관이던 유정방 경정과 수사검사에게 각각 밝힌 뒤 당시의 치안본부 고위간부는 물론 안전기획부와 법무부의 고위간부가 이들을 만나 설득했다는 항간의 소문을 더욱 뒷받침해주는 것이다. 원고쪽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박처원 치안감 수준에서 은폐·조작된 것이 아니라 전두환씨의 지시하에 안기부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통해 조직적으로 은폐·조작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입을 모았다.

조한경 피고인이 87년 2월19일 면회온 유정방 경정에게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27일 담당검사와의 면담을 요청, 다른 3명의 가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말했는데도 검찰이 수사를 않고 쉬쉬하다 5월18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범인이 더 있다"고 폭로하자 21일에야 3명을 추가구속했었다.

또 사제단이 조작사실을 폭로하기 전인 2월28일 김성기 당시 법무장관이 이례적으로 영등포교도소를 방문한 사실은 법무부가 "박씨 사건과는 관련이 없고 지나다 들른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바 있으나 접견기록이 없어진 것과 관련, 주목을 끌고 있다.

원고쪽은 지난해 4월 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당시 안기부장 장세동씨가 차장 이해구씨에게 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어 사건은폐·축소조작과 추모집회 봉쇄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대책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씨는 같은해 2월 조·강씨가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해준다는 경찰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는 보고를 받고 교도소로 찾아가 '협조하면 약속은 지켜진다'고 회유했고, 검찰은 3월7일 이들을 의정부교도소로 이감시킨 후 면회제한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쪽 대리인 김형태(33) 변호사는 "현행법상 명백히 공용서류은닉·증거인멸 등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무릅쓰고 접견기록을 감추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황인철 변호사는 "87년 5월25일 '대한변협 박군사건 은폐조작사건 진상조사단'이 의정부교도소를 방문, 접견기록부 열람을 요청했으나 당시 교도소쪽이 검찰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않은 바 있다"고 밝혔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안상수 변호사는 "접견기록을 검찰이 가져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서증조사 당시 접견기록을 찾아보았으나 발견하지 못했다고 했던 안양교도소쪽은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2일에야 없어졌던 부분을 찾았다고 밝혔으나 진위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여전히 의혹을 낳고 있다.

박종철 열사 초혼장 서울대서 오늘 열려

민주열사 박종철 초혼장 장례위원회(위원장 백기완)는 3일 낮 12시 서울대 아크로폴리스광장에서 박씨의 초혼장을 치르고 오후 3시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노제를 지낸 뒤 오후 5시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하관식을 갖기로 했다.

위원회는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2일 오후 3시30분께 유골이 뿌려졌던 경기도 벽제 임잔강 지류에서 박씨의 혼을 부르기 위한 초혼 의식을 가졌다.

위원회는 "박 열사의 시신이 화장됐기 때문에 그 뜻을 후대에 알리고 시신없는 묘지와 비석이라도 세우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하고 "박 열사가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초혼장을 지내야 하지만 허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신 노제를 지내면서 독재폭력기구인 대공분실 해체를 요구하고 민주화투쟁 의지를 가다듬기로 했다"고 밝혔다.

초혼장이란 고인의 시체를 찾을 수 없을 때 고인을 불러내 장례를 치러오던 장례풍습이다.

박종철씨의 초혼장이 3일 낮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가족과 학생·시민등 1천여명이 참석, 엄수된뒤 장지인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묘지로 운구되고 있다. 박씨의 시신없는 관은 전태일열사 묘소옆에 안장됐다. 〈진천규 기자〉

박종철열사 초혼장

유가족등 1천여명 참석

지난 87년 1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의 초혼장이 '민주열사 박종철 초혼장 장례위원회' (위원장 백기완) 주최로 3일 낮 12시45분께 서울대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박씨의 가족과 재야인사·학생·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시민·학생 등은 이날 초혼장을 마치고 3시20분께 관을 실은 꽃차를 앞세우고 노제를 지내기로 한 남영동 대공분실로 향했으나 경찰의 저지에 막혀 교문앞과 봉천사거리에서 3시간30분 동안 대치하다 봉천사거리에서 약식으로 노제를 지낸 뒤 7시께 장지인 경기도 성남시 모란공원으로 출발, 밤늦게 하관식을 가졌다.

경찰은 이날 남영동 노제를 원천봉쇄하기로 하고 서울대 입구와 봉천사거리 등에 정사복 경찰 1천여명을 배치, 장례행렬의 시내 진입을 막고 장례행렬의 방송차 마이크선을 절단하기도 했다.

한편 장례위원회는 이날 초혼장에서 결의문을 통해 △민중운동 탄압하는 노 정권 퇴진 △안기부·보안사·대공분실 해체 △반민주악법 철폐 △자주적 남북교류 보장 △핵무기와 주한미군 철수 등 10개항을 주장했다.

박씨의 어머니 정차순(55)씨는 유가족 인사에서 "민주주의 제단에 바친 아들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살아 있는 우리 모두가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60)씨와 어머니 정씨는 박씨의 유골이 뿌려졌던 임진강 지류에서 2일 파온 흙과 박씨의 옷·추모집 등을 관에 넣었다.

고문경찰관 접견기록 분실

재판부, 교도소에 해명요구

박종철씨 배상소송

서울민사지법 합의18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8일 '박종철열사추모사업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0차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박씨사건과 관련, 지난 87년 1월 구속된 조한경(43·전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위) 피고인에 대한 외부인 접견기록이 없어졌으므로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원고쪽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의 사실조회신청을 받아들여 조 피고인이 수감됐던 영등포·의정부 교도소에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1989. 10. 9 중앙

5共 권력형 財産權소송

裁判미뤄 3년째 "낮잠"

舊공화당-丁來赫씨 재산반환

梁正模-鄭海永씨 주식청구

"司法府가 政治圈 눈치" 지적

金槿泰·故 朴鍾哲 損賠訴도

5共시절 부당한 공권력 행사나 감압에 의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대형민사소송 사건의 1심 심리가 지지부진, 3년가까이 재판진행이 안되고있는 가운데 사법부의 「눈치작전」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들 소송들은 5共의 정치행위에 대한 판단과 연결돼있어 법원의 판결 결과는 법률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사회적 환경에 대한 해석까지 포함할 것으로 보여 재판결과는 현안이 되고있는 이른바 5共청산과 직결돼 관심의 대상인데도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있는 인상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5共권력형 주요민사소송사건은 舊共和黨재산반환, 丁來赫前국회의장의 헌납재산반환, 梁正模前國際그룹회장의 주식인도청구, 鄭海永前의원의 헌납주식 반환청구외에 朴鍾哲군 가족과 金槿泰前民青聯의장의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이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민사소송지연에대해 『민사소송법184조는 민사사건 1심선고를 5개월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며 『비록 이 조항이 훈시규정일지라도 법원은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을 가능하면 신속히 해결토록해 법적 불안정상태를 빨리 제거해주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대해 담당재판부들은 『원고·피고측의 계속된 증인신청과 관련 형사사건등 처리가 늦어져 지연되고있다』고 밝혔다.

◇舊共和黨재산반환소송=87년12월1일 趙顯相 前共和黨중앙위부위원장등 2명이 民正黨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80년에 해산된 舊共和黨의 재산귀속을 둘러싼 소송.

원고측은 우선 서울可樂洞58의21 대지68평방m등 2필지의 반환을 요구하고있는데 승소할 경우 현재 民正黨소유로 되어있는 1조원에 달하는 舊共和黨재산전부에 대해 소송을 낼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있다.

법원은 지난해 1월19일이래 4~5주 간격으로 15차례 재판을 진행했으나 아직 결심을 못하고있다.

현재 金翰宣共和黨사무처장등 3명의 증언을 들었으며 오는 17일 열리는 변론기일에 李秉禧共和黨부총재등 2명의 증언을 듣기로 했으나 연내처리가 어려우리란 전망이다.

◇丁來赫씨재산반환소송=丁來赫前국회의장이 84년6월 국가에 헌납한 54억원상당의 재산을 돌려달라며 지난해 3월17일 낸것으로 15번이나 재판을 열었으나 李相宰前民正黨사무차장이 증언을 10여차례나 거부, 공전상태다.

◇梁正模씨재산소송=梁正模씨가 낸 國際상사주식인도소송도 지난해4월1일 접수된이래 14차례의 재판진행에도 진척이 없다.

◇鄭海永씨재산소송=鄭海永前의원이 80년7월 주식과 토지헌납은 감압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13일 제기한 반환소송도 기초적인 증거조사단계에머물러있다.

◇金槿泰씨 손해배상소송=金씨가 85년9월「民推委」사건과 관련,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서 조사받으면서 전기고문등을 당했다며 86년10월7일 국가를 상대로 5천만원청구소송을 낸것으로 시국관련 민사재판중 가장 오래 끌고있는 소송이다. 지금까지 17차례나 심리했으나 증거자료가 복잡하고 형사기록서증조사등을 이유로 처리가 늦어지고있다. 더구나 다음 공판일이 정해지지 않아 해를 넘길 전망이다.

◇朴鍾哲군손해배상청구소송=朴군추모사업회 41명이 지난해 4월8일 朴군고문경관등 28명을 상대로 2억8천7백만원을 청구한 사건.

재판부는 연내결정을 목표로 진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까지 12차례 재판이 진행됐지만 증거조사신청이 계속돼 늦어지고있다.

어들어 결국은 민학풍토를 해친다는 현실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교부는 특히 학생비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흡연·음주·약물복용등의 예방을 위해 영화·슬라이드·VTR등 계몽교육자료를 활용하거나 전문가초청강연등을 통해 음주·약물복용등의 피해와 해독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문제가 심각한 상습복용학생은 각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계몽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전문가들이 특별지도토록 했다.

한편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9월말까지 1백2명의 중·고교생이 섬폭행혐의로 적발됐고 98명이 섬폭행 피해를 보았다.

"후배들에 「良心」 가르치겠다"

朴鍾哲군 고문폭로 黃迪駿박사 모교 高大교수로

작년 拷問일기장 공개한뒤 辭表내

협박전화 헛소문 시달려 이사까지

朴鍾哲군의 죽음이 경찰에 의한 고문치사라는 사실을 의사의 양심에 따라 폭로했던 黃迪駿박사(43·당시국립과학수사연구소법의학1과장)가 1년반동안의 실직생활끝에 이번 학기부터 모교인 고려대의대 부교수로 임용됐다.

黃박사는 지난87년1월 朴군의 사체 부검을 맡은뒤 朴군의 사인이 「쇼크에의한 심장마비」가 아닌 「경부(頸部)압박치사」라고 밝혀 朴군사건의 진실을 알리는데 결정적역할을 했었다. 그는 또 朴군의 1주기를 앞둔 지난해1월 자신의 일기장을 공개, 당시 姜玟昌치안본부장과 치안본부 고위간부들이 朴군의 고문치사를 처음부터 알고있었고 이들이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숨기고 「쇼크死」로 은폐 조작하려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경찰수뇌가 구속되기까지했다.

한동안 유학준비…교단서니 홀가분

黃박사는 이 일기장을 공개한 직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사표를 제출하고 실직생활을 해왔다. 자신의 전공(법의학)을 살리기 위해 유학준비를 한는등 바쁘게 생활하기도한 黃박사는 그동안 갖은 협박전화와 악성루머에 휘말리는등 심리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말했다. 「너 하나만 살기위해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놓고 온전할 줄아느냐」는 등의 전화가 수없이 걸려와 전화번호도 바꾸고 집까지 옮겨야 했었다는 것이다.

또 「黃박사의 일기장 공개는 민정당이 姜전본부장을 국회의원공천에서 탈락시키기위해 5억원을 주고 시킨 일」 「黃박사가 국내에서는 앞날이 불투명해 미국이민을 고려중」이라는 근거없는 말들까지 떠돈는등 갖가지 피해를 당했다.

黃박사는 모교의 교단에 서면서 그동안의 착잡했던 심경을 말끔히 정리할수있었다고 말했다.

黃박사가 교단에 서는데는 그의 대학재학시절부터 고려대의대에서 법의학을 강의한 은사 文國鎭교수(고려대법의학연구소장)의 도움이 컸다.

본의아니게 被害준 동료에 미안

文교수가 지난 학기부터 黃박사의 교수임용을 학교측에 강력히 추천했고 학교측도 이를 쾌히 받아들인 것.

黃박사는 이번 학기에는 강의는 말지않고 법의학연구소에서 조교와 함께 연구생활에 전념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文교수와 함께 법의학강의를 나누어 맡기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을 때부터 모교 교단에 서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이 꿈이었다」면서 「그 꿈이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져 기쁘다」고 黃박사는 말했다.

그는 또 「지금도 나때문에 본의아니게 피해를 본 당시 동료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나의 행동은 양심에 따라 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黃박사는 지난83년 釜山고신대의대교수를 거쳐 84년12월부터 3년2개월동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근무했었다.

〈洪淳剛기자〉

동아 1989. 10. 13

500 그물 1박종철

1년반 失職…이젠 研究몰두

고 박종철씨 고문치사규명

황적준박사 고대교수 임용

500 박종철

고 박종철씨의 죽음이 경찰의 고문치사라는 사실을 밝혀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황적준(43) 박사가 1년6개월 동안의 실직생활 끝에 이번 학기부터 모교인 고려대 부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989. 10. 14

公權남용·가혹행위에 거듭警鐘

朴鍾哲군 損賠판결 의미

◇사건직후 심경을 말하는 고朴鍾哲군의 아버지 朴正基씨와 어머니 鄭且順씨。

國家-고문경관등 연대배상 큰意義

"관계기관회의 問責 못한것은 유감"

金槿泰씨 소송등에 영향클듯

1989. 11. 09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고문경관 등이 연대해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朴군사건은 사건발생 2년10개월, 소송제기 1년7개월만에 형사·민사에 대한 1심재판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富川경찰서성고문사건에이어 재판부가 朴군사건의 형사적책임뿐아니라 국가와 고문경관을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 재산및 정신적피해보상이라 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등 유가족 4명과 權仁淑 田在權씨등 고문피해자 가족대표등 41명은 지난해 4월8일 李錫兌변호사등 19명을 소송대리인으로해 姜玟昌전치안본부장 朴處源전치안감 張世東전안기부장 고문경관 국가등 모두 29명을 상대로 2억8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이들은 소장에서 『이른바 5共의 군사정권 핵심 인물이 「관계기관대책회의」 또는 「당정대책회의」 등을 통해 고문살인의 은폐·축소조작을 모의하고 지행해왔다』며 『朴군에 대한 전기고문여부와 관계기관대책회의의 실체를 규명하고 고문등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의 계기를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에대해 국가측은 『朴군사건 다음날인 지난87년 1월15일 南營洞 대공분실에서 朴군의 가족에게 9천5백만원을 지급했으며, 이때 더이상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그 돈은 朴군의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를 합한것으로, 내무부장관의 사전승인과 대통령에 대한 사후보고등 정당한 결재절차를 거쳐 국고에서 지불한 것이므로 국가로서는 더이상 책임이 없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9천5백만원은 朴군고문치사사건의 진상을 은폐할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주어진 것이며 ◀朴군가족은 강박상태에서 정확한 사인도 모른채 속아 돈을 받았고 ◀경찰관이 국가의 대표나 대리인자격으로 위자료를 지급할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재판부도 『朴군가족이 돈을 받으며 소송제기를 않기로 합의했다고하나 이는 불법가혹행위를 알지못하는 상태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기때문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했었다고 볼수 없다』며 국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 소송은 11차례의 법정공방을 벌이면서 원고수는 8명으로 줄어들었고 청구액도 2억5천4백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번 판결로 朴군사건에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게 됐지만 5共시절 朴군고문치사사건을 뒤에서 은폐·축소조작한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이른바 「관계기관대책회의」에 대한 책임추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는 소리도 있다。

국가권력의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책임이었다는 이번판결은 비슷한 피해자들의 소송러시를 몰고올 가능성도 크다。

또 인신구속및 수사권한을 가진 일선 수사관들뿐만아니라 권력을가진 「관계기관공무원」들에게는 더이상 불법적인 공권력남용이나 가혹행위를 저질러서는 안된다는경종이 되기도했다。

【洪潤五기자】

"眞實은 돈보다 값진것"

「抗訴」밝힌 朴鍾哲군 아버지

1989. 11. 14

事件眞相규명까지 투쟁
賠償은 소송副産物일뿐

날들은 세월이가면 잊어질 것이라고들 한다。그러나 박종철군의 아버지 朴正基씨(61)는 그렇지않다。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사방이 꽉 막힌 칙칙한 밀실에서 피맺힌 비명을 질렀을 자식의 얼굴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를 뿐이다。

『차라리 분신으로 자신의뜻을 폈으면 아픔이 덜했을 텐데…』

겨우 잠을청해 잠자리에들어도 어쩌다 잠을깨면 그것으로 그만이다。가슴앓이가 도지기 때문이다。지난 12일엔 아들의 흔을묻은 光州모란공원을 다녀왔다。

1년7개월동안 벌였던 법정투쟁을 「중간보고」했다。그렇지만 그다지 흡족한 내용이 아니라서 무거운 마음으로 발길을 돌려야했다。

지난 8일 서울민사지법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와 고문자들은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지난해4월 제기한 이민사소송의 목적이 아들의죽음을 미끼로 배상이나 받자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재수사—재재수사를 거치면서도、그리고재판과정에서도 사건의전말은 물론 그책임한계도 분명히 가리지 못해 소송을 벌인것입니다。그럼에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한계때문에 은폐조작관계자들에 대한 구체적범행사실의 규명이나 관계기관대책회의등의 실상을 제대로파헤치지 못한게 매우 안타깝습니다』

朴씨는 1심판결에 만족할수없어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배상금은 민주화를위해 쓰겠다고 말했다。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밝혀지지않은이상 아들을잃고 괴로워하는 또다른 부모들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개연성이 두렵기 때문이다。

『충격에서 어느정도 벗어난 2년전8월、「유가협(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에 참여、각종 인권관련사건이 발생하면 광주·부산등을 돌며 피해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을 볼때마다 가슴이 떨려 말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덕분에 우황청심환등 진정제들을 항상 갖고 다니지요』

종철군의어머니(鄭且順씨·56)는 외출을 좀처럼 못할정도로 쇠약해 있다。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했던 큰아들(鍾富씨·30)은 회사((주)인켈해외영업부)측의 설득과 보살핌으로 직장생활을 계속하고 있으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못내 조마조마하기만 하다고 한다。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으로 이같은 불행한 가족들이 사라져야할텐데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쉽지않을것 같아요』

朴씨는 꽃다운 젊은이들의 잇단죽음으로 어렵게 마련된 민주화의 교두보가 정치인들의「근시안」으로 자꾸 허물어지고있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고 말한다。

〈글 李起煥·사진 崔宰榮 기자〉

朴鍾哲군 유족등에 7千6百萬원 지급

법무부는 29일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 관련、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억3천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등 유가족8명에게 7천6백21만원을 지급했다。

이에앞서 전치안본부장 姜玟昌씨와 전치안본부5차장 朴處源씨등은 자신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 1천8백60만원을 유가족들에게 주었다。

이사건 재판부인 서울민사지법합의18부(재판장 李揆弘 부장판사)는 지난달말 열린 이사건 1심선고공판에서 손해배상액 1억3천1백만원 가운데 3분의2에 대해서 항소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도록하는 가집행선고를 했었다。

박종철씨 유족에 7천6백만원 지급

1989. 12. 30.

법무부는 29일 국가와 고문경찰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1심에서 1억3천여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은 박종철씨의 유가족 등 8명에게 법원 판결에 따른 가집행선고 금액인 7천6백21만여원을 지급했다. 또 전 치안감 박처원씨 등 3명은 지난 5일 9백33만원, 강민창 전치안본부장은 국가와 연대해 9백33만원을 박씨 유족에게 지급한 바 있다.

고 박종철씨 배상금
기념관 건립 쓰기로

【부산=이수윤 기자】 물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59)씨 등 유가족은 31일 정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7천6백21만원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박처원 전 치안감으로부터 받은 배상금 1천8백60만원을 '박종철기념관'을 만드는데 쓰겠다고 밝혔다.

朴鍾哲군 3周忌
추모행사 잇달아

1990. 01. 10.

오는14일 朴鍾哲군3주기를 맞아 朴군기념사업회(공동의장 白基玩 明盡 高永耈) 등이 추모식등 각종행사를 잇달아 갖는다.

기념사업회는 10일 전민련 전노협준비위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등 20여개 재야및 학생단체와 연대,「민주열사朴鍾哲3주기투쟁계승대회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朴군추모사업일정을 밝혔다.

위원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동안을 朴군투쟁계승을 알리는 대국민선전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전국 각대학에 분향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12일 서울대에서 추모식및 시국강연회를 가진뒤 13일 京畿도磨石 모란공원의 朴군묘소(假墓)를 참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또 14일 오후2시 서울明洞성당에서「민주열사 朴鍾哲3주기투쟁계승및 盧泰愚정권퇴진 결의대회를 여는등 전국 대도시에서 朴군투쟁계승대회를 동시에 개최하기로 했다.

고 박종철씨의 3주기를 앞두고 아버지 박정기(가운데)씨와 어머니 정차순(왼쪽)씨 형수 서은석씨가 서울 염리동 큰아들 종부씨 집에서 박씨의 앨범을 보며 애통해 하고 있다. 〈진천규 기자〉

'박종철 인권회관' 세운다

1990. 01. 12

가족, 3주기 맞아 '추진위' 구성키로

오는 14일은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박종철씨의 3주기.

박씨의 3주기를 맞아 그의 넋을 기리고 인권탄압에 맞서 싸우는 상징적인 장소가 될 '인권회관'이 가족들에 의해 세워진다.

아버지 박정기(62)씨 등 가족들은 지난해 11월 국가와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가족들에게 1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나오자 이 돈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끝에 최근 인권회관 건립에 사용하기로 뜻을 모으고 땅·건물을 물색하고 있다.

아버지 박씨는 지난해 12월말 아들이 고문 끝에 숨진 치안본부 대공분실이 있던 서울 남영동 일대와 박씨가 다니던 서울대학교가 있는 신림동 등지를 중심으로 땅을 구하러 다녔으나 땅값이 턱없이 비싸 감히 엄두도 못내고 돌아서야만 했다. 30평 규모에 3층 이상 건물을 생각하다보니 평당 3백만원이 넘어 1억3천여만원으로는 도저히 힘이 부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족들은 우선 마땅한 부지를 확보한 뒤 추모식이 끝나는 대로 인권회관건립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건립추진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인권회관이 들어서면 가족들은 이곳에 인권문제상담소 등을 두어 인권이 짓밟힌 사람을 도와주는 한편 인권탄압사례 등을 모아 이를 폭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버지 박씨는 "종철이가 지난 87년 모진 물고문 등을 당하다 끝내 숨진 이후에도 여전히 밀실·고문 수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떠한 형태이든지 고문 등 인권침해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굳어져간다"고 말했다.

〈김형선 기자〉

고 박종철씨 3주기…대학가 추모집회

1990. 01. 13

지난 87년 경찰의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씨 3주기 추모집회가 12일 오후 서울대·연세대·경희대 등 서울시내 10여개 대학에서 학생 2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제히 열렸다.

학생들은 이날 추모사에서 "박 열사의 고문살해 등 온갖 죄악을 저지른 5공의 실상이 여야합의 아래 은폐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3당은 기만적인 5공청산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또 "박 열사의 추모식을 애도의 차원을 넘어선 90년대 민주해방투쟁의 새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하고 14일 명동성당 추모대회와 22일 전노협결성식에 적극 참여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박종철추모사업회(회장 백기완)는 13일 경기도 마석의 박씨 가묘에서 추모행사를 가진 뒤 14일 오후 2시 명동성당에서 '고 박종철 열사 3주기 추모집회 및 노 정권퇴진 결의대회'를 열 계획이다.

오늘 고 박종철씨 3주기

명동성당서 추모행사

경찰 "원천봉쇄"

경찰은 박종철기념사업회(회장 백기완)가 14일 오후 2시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 예정인 박종철씨 3주기 추모행사를 불법집회로 간주, 원천봉쇄키로 했다.

기념사업회쪽은 "지난 10일부터 서울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서를 제출하려 했으나 경찰이 서류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미뤄오다가 12일 오후 4시께 '집회 48시간 이전에 집회신고를 마쳐야 한다'는 집시법의 규정을 들어 집회신고서의 접수를 거부했다"면서 "예정대로 14일 명동성당 집회를 강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 박종철씨 3주기 추모법회가 13일 오전 10시30분 부산 사하구 괴정3동 사리암(주지 도승)에서 아버지 박정기(62)씨와 '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1990. 01. 13.

박씨 가족과 백기완씨 등 1백여명은 이날 오전 경기도 남양주군 마석 모란공원에 있는 박씨 가묘를 참배했다.

경찰에 에워싸인 '박종철씨 추모'

1990. 01. 14.

2천명 명동일대 봉쇄 속 3주기 행사 치러

시위 1백68명 구타·연행

지난 87년 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자격으로 조사를 받다 고문으로 숨진 고 박종철씨 3주기 추모행사가 경찰의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서울 명동성당 정문앞에서 박씨 기념사업회 등의 주관으로 박씨의 가족·재야단체회원·학생·시민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경찰은 이날 집회를 봉쇄하기 위해 성당주변과 명동일대에 14개 중대 2천여명의 병력을 배치했으며 성당에 들어가지 못한 시민·학생 5백여명은 명동일대에서 '구속 전두환, 건설 전노협'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오후 4시30분까지 산발적인 시위를 벌였다. 집회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노 정권은 지난해말 야당과 야합하여 전두환씨의 거짓증언으로 이른바 5공청산을 했으며 임금동결선언에 이어 전노협 건설 추진단체와 노동운동단체를 잇따라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90년대 보수대연합체제로 가기 위한 신호탄이며 민중을 억압과 착취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짓"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명동일대에서 중앙대생 최영식(21·지역개발3)씨 등 모두 1백68명을 연행, 이 중 노동우(22·동국대2)씨를 제외한 1백67명을 귀가조처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을 연행하면서 구둣발과 주먹으로 얼굴 등을 구타해 시민과 연행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서울시경은 감찰반을 관할 중부경찰서로 보내 연행자 구타사건을 조사하도록 했다.

안녕하십니까

그때 그事件의 그사람… 오늘을 본다

『朴군 사건을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 朴군을 살려내지 못한 것이 죄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서울大생 朴鍾哲군(당시 21·인문대언어학과 3)의 사체를 서울 용산구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처음으로 검안, 87년 당시의 삼엄했던 분위기에도 불구、고문의 흔적이 있음을 밝혀 정국과 사회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뀌게 했던 중앙대 용산부속병원 내과의 吳演相씨(34)는 4일 당시를 회상했다.

吳씨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일일수록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고 말했다.

朴鍾哲군 검안의사 中大병원 吳演相씨

특히 생명을 보살피는 의사로서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는 吳씨는 『朴군 사건때도 특별한 감정、보탬이나 왜곡함이 없이 의사로서의 일상적인 자세로 일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吳씨가 朴군을 처음 검안한 87년 1월14일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기념비적인 날이며 6공화국의 탄생을 예고한 날이기도 하다.

고문흔적 밝혀 국민분노 點火

教授로 재직、부모경영 양로원찾아 仁術도

이날 吳씨는 당직의로 근무하다 『대공분실 직원』이라고 신원을 밝힌 2명과 함께 갈월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취조실에 갔었다.

취조실에는 한 사람이 누워 있고 바닥에는 물기가 흥건했으며 吳씨를 본 사람들이 『꼭 살려내야 한다』고 다그치듯 말해 정신없이 심폐소생시술을 했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가 바로 朴군이었다. 『기관지에 튜브를 집어 넣어 인공호흡을 시키고 충격요법으로 사용되는 캄푸르주사를 놓고 심장마사지를 약 30분간이나 계속했으나 朴군의 심폐기능은 끝내 소생되지 않았습니다』

吳씨는 『이같은 사실과 당시 정황을 朴군 사망진단서 의사소견란에 기록했는데 이것이 기사화돼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라고 사건의 자초지종을 털어 놓았다.

吳씨는 사건발생후 9일동안 빗발치듯 걸려오는 전화때문에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어 자의반 타의반으로 휴가를 가졌었다.

『朴군 사건이후 전화가 비수보다도 예리하게 제 가슴을 져며내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라며 吳씨는 당시의 참담했던 순간들을 회상했다.

吳씨는 이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되고 난후 이름을 밝히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3백~4백통의 전화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병원 교환원들과 제 아내였을 것』이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吳씨는 『전화내용을 일일이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격려와 찬사를 보내는 사람들의 전화내용에 용기를 가졌었다』며 『듣기 거북했던 말을 해준 사람들의 전화내용이 더 기억에 새롭다』고 말했다.

1990. 06. 15

吳씨가 朴군 가족과 처음 만난 것은 그해 12월말 한국교회협의회가 마련한 세미나자리에서였다. 그 자리에서 朴군 부모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해야 될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다.

朴군 가족들도 특별한 말없이 그저 인사말만 주고받았는데 그후 각종 모임에서 2~3차례 더 만났지만 계속적인 관계는 맺지않고 있다고.

吳씨는 이비인후과 의사인 아버지 吳俊植씨(57)와 산부인과 의사인 큰 아버지 吳俊午씨(59)의 뒤를 이어 의사 가문의 2代다.

의사 3代를 이루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의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졌다』며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의 진로는 스스로가 결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鍾哲군의 고문치사 사건을 세상에 알린 중앙대 용산병원 내과의 吳演相씨는 『朴군의 사건이 그토록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杜龍喆기자〉

吳씨는 최근 아버지가 경영하는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順愛院이란 양로원을 자주 찾는다. 수용중인 1백여명의 노인들에게 무료로 의술을 베풀고 자신의 아들에게 할아버지 할머니의 정을 가르치기 위해서란다.

86년 3월부터 中央大의대에서 교수로 재직중이며 외래 진료의 진료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朴군 사건이 터져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줬다고.

吳씨는 의사란는 직업에 충실하면서 의사로서 본것、느낀 것、생각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얘기할 생각이라고 다짐했다.

어느 종교에도 심취해 있지는 않지만 종교에 관심을 갖고 있는 吳씨는 『부친이 기독교 신자라서 성경도 읽었고 최근에는 불교의 禪에 관한 책들도 읽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吳씨는 아직까지는 지나온 시절을 얘기하기 보다는 살아갈 날들을 준비해야 할 일들이 더 많다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보였다.

〈申鉉德기자〉

「朴鍾哲군 고문은폐」4명 無罪선고

"姜玟昌·朴處源씨등 혐의없어" 서울高法

동아 1990. 08. 17.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은폐조작기도와 관련해 직권남용및 직무유기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치안본부장姜玟昌피고인(58)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또 朴군고문치사경찰관 축소조작은폐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까지를 선고받고 항소한 전치안본부5차장 朴處源(63)전대공·사2단5과장劉井邦(52)전대공수사2단5과2계장 朴元澤피고인(50)등에게도 이날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 고법형사1부(재판장 柳根完부장판사)는 17일 姜전치안본부장에 대해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혐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이유로, 朴處源피고인등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의 혐의점을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姜피고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살펴볼때 朴鍾哲군의 부검의사인 黃迪駿씨에게 부검소견메모를 고쳐쓰도록 직접 지시한일이 없을뿐아니라 메모작성행위가 黃씨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려운만큼 姜피고인이 직권남용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姜피고인의 직무유기혐의에 대해『치안본부장은 수사관이 아니라 지휘책임만 있으며 당시의 전후사정을 살펴보면 확정적으로 직무를 포기할 범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朴處源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도『朴鍾哲군을 가혹행위로 숨지게한 범인경관 5명중 3명을 은닉도피시켰다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당시상황을 살펴볼때 피고인들이 경황중에 부하를 잘못 단속한 점과 직무를 소홀히 한점은 인정되나 정확한 보고를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한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들이 범인경관을 은닉도피시킬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朴군을 고문치사시킨 趙漢慶경위(복역중)가 이들 피고인들에 대해 범인을 축소 은폐 도피시켰다고 주장한점은 趙경위가 진술당시 감정적혼란에 빠져 말한것으로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이들 피고인에 대한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공판정에 나와있던 대공경찰관들과 그 가족들은 만세를 불렀으며 피고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동료들과 얼싸안았다.

姜전치안본부장은 지난88년1월16일 대검중앙수사부에 의해 朴군의 부검의인 黃迪駿박사에게 朴군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며 가혹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고쳐 쓰도록 강요한 혐의등으로 전격구속돼 같은해 3월 서울형사지법합의10부(당시 재판장 孫晋坤부장판사)에의해 징역8월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법경찰관이 아니더라도 수하의 사법경찰관을 지휘감독해 자체조사를 할 권한이 있음으로 사건초기에 명쾌하고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했어야 한다』며 『사건발생후 조사에 최선을 다하지않고 부검의에게 외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세차례에 걸쳐 바꿔쓰도록 한 사실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었다.

또 朴피고인등은 서울형사지법합의14부(당시재판장 朴英武부장판사)에 의해『趙漢慶 姜鎭圭등의 참고인진술을 종합해볼때 피고인들이 朴군의 고문경찰관5명을 2명인양 축소도피시켰다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는 판결을 받았었다.

한편 검찰은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키로 했다.

'박종철 고문은폐' 4명 무죄 선고

1990. 08. 18.

서울고법 강민창·박처원씨 등 "증거없다"

박종철씨 고문치사 범인 은폐 조작 협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58)씨와,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처원(63), 전 대공수사2단 5과장 유정방(52), 전 대공수사2단 5과 2계장 박원택(50)씨 등 4명에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관련기사 14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유근완 부장판사)는 17일 전 치안본부장 강씨에 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협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의 직무유기 협의와 관련, "피고인이 박씨 사망 직후 박씨가 가혹행위로 숨진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검의사의 소견을 발표하지 않은 것은 경찰총수로서 사회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안을 유지한 것"이라며 "직무유기죄는 고의로 직무를 포기했을 때 성립되는 것으로 강씨의 행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부검의사였던 황적준씨에게 부검소견메모를 고쳐쓰도록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메모 작성행위가 황씨의 직무상 의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강씨가 메모작성을 간접적으로 지시했다 하더라도 직권남용을 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치안본부 5차장 박씨 등 3명의 범인도피 협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박씨 사망 직후 부하경관들을 잘못 단속하고 직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고문경관이 모두 5명임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이들이 고문경관의 은닉·도피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유정방, 박처원은 박씨가 숨진 지 한달여 뒤에 고문경관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먼저 구속돼 있던 경관 2명을 면회해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는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문제삼을수 없다"고 밝혔다.

강씨는 이날 선고가 있은 뒤 "그동안 받아왔던 오해가 풀려 다행으로 여긴다"면서 "박씨의 유족에 대해서는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에게 무죄선고가 내려지자 방청석에 앉아 있던 동료경찰관들과 가족들은 만세를 부르며 피고인들을 얼싸안기도 했다.

강씨는 지난 88년 1월16일 황적준 박사에게 박씨의 사인에 대한 부검소견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면서 가혹행위로 인해 숨졌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협의 등으로 대검중앙수사부에 의해 구속된 뒤 1심에서 협의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8월 자격정지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다.

평민·민중당 비난 성명

평민당 김태식 대변인은 17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에 대한 무죄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5공시대의 대표적 인권탄압 인사들에 대한 의외의 무죄판결은 국민의 깊은 의혹을 면키 어렵다"고 말하고 대법원의 마지막 심판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당도 성명을 내고 "이는 독재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유린행위를 묵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고문행위 등 인권탄압의 책임을 일선실무자로만 한정시키는 전례가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관련자 무죄판결 의미

사건 진상은폐 책임 소재 실종

1990. 08. 19 '교도소 왕래 조작' 공소장 기재도 않아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씨와 전 치안감 박처원씨 등 박종철씨 고문치사 범인 은폐조작사건과 관련, 기소된 전 경찰간부 4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된 것은 검찰이 범인은폐 사실을 알고도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적극수사를 벌이지 않은 데 일차적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고법의 판결문에서도 드러났듯이 87년 2월27일 교도소에 수감중이던 고문경관 조한경씨가 수사검사에게 "고문에 가담한 경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을 털어 놓았는데도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하지 않다가 5월18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성명을 통해 이 사실을 폭로하자 뒤늦게 5월29일 박씨 등 3명을 구속했었다.

더욱이 조씨의 폭로 이후 박씨 등 경찰간부가 교도소를 드나들면서 조씨를 설득하고 가족에게 거액을 제시한 사실 등이 확인됐음에도 이 부분을 공소사실에서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박씨는 수감중인 조씨 등을 교도소로 면회가 각각 1억원이 예금된 통장을 보여주며 회유했다는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됐으나 검찰은 기소단계에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아 의혹을 받아 왔다.

또 사건당시 박씨 등 경찰 고위간부만이 아니라 법무부 등 정부 고위관계자가 교도소로 조씨 등을 찾아가 설득·회유했다는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이 사건이 정권차원의 범죄라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박씨 등이 조씨를 면회해 설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에 넣지 않아 문제삼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검찰의 태도 이외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엄격한 증거주의'만을 내세워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도 이 사건을 국민들이 고질적인 고문관행의 전형적인 예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고문 척결의지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는 견해도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재판부가 "박씨 등이 범인이 2명이 넘는다는 것은 알았을 것" "수사2계 직원 모두가 5명이 범행한 것을 알고 있었다"는 조한경·강진규의 검찰진술과 당시 수사2계장 박원택씨가 사건 직후 조씨 등 5명을 따로 모아 놓고 상부에 보고한 행정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연행시간 등 행적을 재확인한 점 등을 유죄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쪽은 강력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도 하다.

재판부는 이 진술들에 대해 "2심법정에서 번복했다"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라 증거로 하기엔 부족하다"며 배척했으나 피고인과 증인들이 조서작성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설득력있는 증거선택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런 점들 때문에 법원이 엄격한 증거주의에 따른 판단이었다고 강조한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국민들의 법감정과는 다소 동떨어진 결론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판결은 범인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사건의 진상을 숨기려 했던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제기해 주고 있다.

〈김이택 기자〉

'고문 은폐' 무죄 판결
검찰에 상고 촉구
1990. 08. 19

박종철 기념사업회

'민주열사 박종철 기념사업회'는 18일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고 박종철씨 '고문살인 은폐조작' 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무죄선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판결은 고문을 합법화하는 일이자 이 땅에 민주와 인권을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고 주장하고 "검찰은 2심에서 제외된 박처원씨의 1억원 통장 등 모든 증거를 추가해 지체없이 즉시 상고하라"고 촉구했다.

「축소의혹」못밝힌 의외의 판결

「朴군 고문 은폐」4명 抗訴審 無罪선고 안팎

동아 1990. 08. 18.

해설

176-판결

李昌錫구속과「同時선고」묘한 여운

5共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6·10항쟁」의 도화선이 된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 은폐기도및 고문경찰관 축소조작혐의로 1심에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던 姜玟昌전치안본부장과 朴處源전치안본부 5차장을 비롯한 대공경찰간부 3명등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국민들에게 당혹감을 던져주고 있다.

서울고법형사1부는 이날 같은시간에 열린 全敬煥전대통령의 처남 李昌錫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李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전격적으로 법정구속하면서 姜前치안본부장등 경찰전직간부 4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묘한 대조를 이루었다.

이에대해 일부에서는 5共정권의 핵심적 치부였던 朴군고문치사사건관련피고인들에게 무죄선고가 던져줄 충격을 李昌錫피고인에대한 법정구속으로 희석시키려는 재판부의「계산」이 깔려있지않았냐고 보는 시각도 없지않다.

姜피고인들은 최소한 원심대로 집행유예가 선고될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과는 달리「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4명 모두 무죄선고가 내려진것은 의외였다.

재판부는 姜피고인의 직무유기부분에 대해「피고인은 사고발생보고를 받은즉시 그 발생경위에 대한 조사및 사후수습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는등 당시 치안본부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고 부검결과가 공식발표되기전 부검의의 부검소견을 일시적으로 보안유지토록 한 것을 직무유기행위로 볼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직무유기사건은 법리구성이 어려워 종래 상급심에서 무죄판결이 나는 경우가 많았던게 사실이다.

법원은 공무원이「직무유기를 한다는 주관적 의사와 직무를 포기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직무유기 범의를 엄격하게 해석해오고 있다.

또 姜피고인에게 적용된 직권남용부분에 대해서도「부검의인 黃迪駿박사에게 부검소견이 질식사가 아니라는 쪽으로 메모를 작성토록했다는 공소사실 역시 부검의인 黃씨가 사건당시 검찰에서의 진술을 번복,「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등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발생한지 3년이상 지나서야 항소심재판이 이뤄졌고 1심판의 1회공판때 사실심리와 구형이 있었고 2회공판에서 선고를 하는등「최단시간」빠른기「날림식」으로 진행된 1심재판과정이 이번 항소심에서 무죄선고가 내려지는데 적지않은 기여를 한것으로 재야법조계에서는 지적하고 있다.

범인도피죄가 적용된 朴處源피고인등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피고인들이 고문치사범인이 2명이상일 것으로 추측할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범인을 축소 은폐, 도피시켰다는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朴피고인등이 구속된 趙漢慶경위등을 면회하면서 사건을 확대시키지 않도록 이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들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문제삼지 않았다.

이는 당초 온 국민을 분노케한 朴군고문치사사건의 특성에 비추어 검찰이 치밀한 수사를 통해 공소사실을 확정해야했는데도 재야법조계의 축소조작불만과 언론의 끈질긴 추적에 밀려 소극적인 수사를 한데 그쳤기때문이라는 풀이된다.

특히 사건당시 趙경위의 가족들이 언론을 통해 검찰간부들이 趙경위등 2명이「총대」를 메고 모든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각각 1억원씩이 예치된 예금통장을 만들어 보여주며 회유했다고 밝혔는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朴피고인들의 혐의를 구증하는데 미흡한채로 기소했었다.

이밖에 朴피고인등 3명이 무죄판결을 받은데는 항소중인 趙漢慶경위가 항소심법정에서 1심법정에서의 진술을번복,「朴피고인들이 범인을 축소조작토록 이야기한 기억이없다고 진술한 것이 무죄선고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그러나 대공경찰은 오ㄴ 조직보다「의리」를 생명처럼 중시한다는 특수성에 비추어 黃박사 趙경위등이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진술을 말했다가 3년여의 세월이 흐르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진술을 번복했을 가능성이 큰데도 재판부가 이부분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朴군고문치사사건의 범인이 당초 발표됐던 2명이 아니라 5명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朴피고인들이 趙경위등「총대」를 멘 2명의 입을 막으려고 애쓴 사실등이 세상에 공표됐는데도 이번 판결로 이과정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아무도 없게된것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姜피고인등 4명에대한 이번 무죄판결은 단순한 항소심재판부의 견해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대법원은 법률심만을 하기때문에 직무유기와 관련해 법리해석의 여지가 남아있는 姜피고인을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실상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재야법조계인사들은 이번 항소심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에만 증거위주로 엄정한 재판을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검찰의 미흡한 수사로 朴군고문치사사건의 핵심부분인 범인축소조작은폐의 진상을 밝히지 못해 오히려「의혹」만 남겼을뿐이라고 말하고있다.

〈崔英勳기자〉

「5共비리」 2건…異例的 판결

"罪質나쁘다" 재판부 시각변화 — 李昌錫씨

결백이 아니라 증거없어 無罪 — 고문사건

고문사건은 上告審서 논란 벌일듯

조선 1990. 08. 18.

서울고법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李昌錫피고인을 실형선고와함께 법정구속하고 姜玟昌피고인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모두 뜻밖의 판결이었다. 우선 李피고인의경우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예가 드물다는점에서 이례적이다. 실형이 선고된다해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구속을해야하는것은 아닌데도 선고와 함께 즉시구속집행을 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재판부가 李피고인을 구속한것은 이사건을 보는 재판부의 시각이 1심때와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1심은 작년4월 李피고인에게 집행유예선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포탈한 세금을 전액 납부한 점등의 정상을 참작한다」고 그이유를 밝혔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은 李피고인이 ▲회사재산의 60%에 달하는 29억원을 횡령했는데도 지금까지 그반액도 안되는 13억원밖에 갚지않았고 ▲횡령한 돈을 부동산매입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했으며 ▲(주)동일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하도급업체에 대한 공급가격을 실제보다 많게 계상해 의도적으로 조세17억원을 포탈하는등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집행유예로 풀어주는것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판단한것이다.

당초 1심에서 李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석방하자 법조계에서는 그의 혐의 내용에 비추어 지나치게 형벌이 가벼워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다.

반면, 5공말기 정치적 변화의 계기가 됐던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의 은폐 축소조작혐의로 기소된 姜玟昌 朴處源피고인등 4명에 대한무죄선고는 앞으로 대법원에서도 논란을 벌이게 될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姜피고인의 혐의내용은 두가지였다. 姜피고인이 ▲부검의사 黃迪駿씨로부터 朴군이 가혹행위를 당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내용의 부검소견을 받고도 지체없이 사망경위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자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직무유기혐의와 ▲黃씨에게 기자간담회용으로 부검소견에대한 메모작성을 지시하면서 두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도록 요구했다는 직권남용혐의였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사건당시 姜피고인이 취한 일련의 행동으로 볼때 치안본부장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고 인정될뿐, 반대로 그가 직장을 이탈하거나 사태를 방관하는 등의 적극적인 직무포기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 혐의에대해서도 姜피고인이 黃씨에게 부검소견서를 왜곡작성하도록 요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88년3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증거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증거부분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판단이 朴군사건이 갖고있는 중대성에 비추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도있다. 검찰도 姜피고인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 유력한 물증으로 제시됐던 黃씨의 일기에 대해 재판부가 아무런 언급을 하지않은것은 납득할 수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朴處源피고인등 전경찰간부 3명의 혐의는 이들이 당초 朴군을 고문한 경찰관이 趙漢慶경위등 2명이 아니라 3명이 더 있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축소 조작, 범인을 도피시켰다는것이었다.

재판부는 이에대해 朴피고인등이 범인이 더 있다는 사실을 사건당시엔 알지못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무죄선고의 의미가 피고인들이 결백하다는 뜻이 아니고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뜻이라는점도 새겨볼만한 일이다. 〈金琅基기자〉

「고문은폐」無罪 반발 거세다

1990. 08. 21 동아

故 朴鍾哲군 기념사업회등 12개 정당·재야단체 대표자들이 20일오전 서울太平路 세실레스토랑에서 고문치사 은폐조작관련자들에 대한 무죄판결에 항의하는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吳宗鎔기자〉

"檢察서 증거확보 소홀" 在野등 12곳 공동투쟁 선언

서명운동등 전개…올가을 태풍의눈 으로

재야운동권의 對정부투쟁 전선에서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일고 있는 항의사태는 朴군 고문치사가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였다는 역사적인 사실과함께, 재야에서는 검찰이 무죄선고를 유도했다는 주장을 펴고있어 상당기간 심각한 파장을 날을 것으로 보인다。

朴군기념사업회 (회장직무대리 高洙一변호사) 는 20일에는 朴군 기념사업회를 포함, 李韓烈기념사업회·민가협·全民聯인 진영과의 연대투쟁의지를 표명했다。

20일에는 朴군 기념사업회를 포함, 李韓烈기념사업회·민가협·全民聯인 진영과의 연대투쟁의지를 표명했다。

이처럼 각단체가 신속하게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그것은 朴군사건이 5共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인만큼 이번 무죄판결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정당·재야단체들은 이번일을 그동안 범민족대회의 열기로 냉각됐던 反民自黨및 내각제 개헌반대투쟁을 본격화시킬수 있는 好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3黨합당과 날치기통과등 파렴치한 행각이 나온 마당에 법원마저 5共시대를 연상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국민은 이번일을 민주·統推회의등 12개 정당·재야단체가 조직적으로 공동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처럼 각단체가 신속하게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그것은 朴군사건이 5共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인만큼 이번 무죄판결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정당·재야단체들은 이번일을 그동안 범민족대회의 열기로 냉각됐던 反民自黨및 내각제 개헌반대투쟁을 본격화시킬수 있는 好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3黨합당과 날치기통과등 파렴치한 행각이 나온 마당에 법원마저 5共시대를 연상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국민은 이번일을 민주·統推회의등 12개 정당·재야단체가 조직적으로 공동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처럼 각단체가 신속하게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그것은 朴군사건이 5共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인만큼 이번 무죄판결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정당·재야단체들은 이번일을 그동안 범민족대회의 열기로 냉각됐던 反民自黨및 내각제 개헌반대투쟁을 본격화시킬수 있는 好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3黨합당과 날치기통과등 파렴치한 행각이 나온 마당에 법원마저 5共시대를 연상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국민은 이번일을 민주·統推회의등 12개 정당·재야단체가 조직적으로 공동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이처럼 각단체가 신속하게 연대투쟁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

그것은 朴군사건이 5共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정권의 기반을 뒤흔들어 놓았던 사건인만큼 이번 무죄판결은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분노의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들 정당·재야단체들은 이번일을 그동안 범민족대회의 열기로 냉각됐던 反民自黨및 내각제 개헌반대투쟁을 본격화시킬수 있는 好材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등을 통해 「정치권에서 3黨합당과 날치기통과등 파렴치한 행각이 나온 마당에 법원마저 5共시대를 연상케하는 판결을 내놓았다」며 「국민

태풍의눈 으로

에 대한 무시가 극에 달했다」고 같도 높은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12개단체 대표자들은 20일 서울瑞草洞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검을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한데 이어 22일에는 弘濟洞 안분부대공분실 앞에서 평화적인 항의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이어 이달말 가두서명 시작과 함께 「5共시절의 2~3배가 넘는 정치법 숫자」를 기록하고 있는 인권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감연회를 열어 여론 확산작업에 주력한다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다。

12개단체외에도 서울大 등 각대학이 2학기개학을 앞두고 이번 판결을 연결축으로 해 연대투쟁에 나설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투쟁방법이 지나쳐 혹시라도 여론이 등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는 눈치。

투쟁대상이 합부로 다룰수 없는 판결인데다 상대방이 법원이기 때문에 자칫 사법권 독립과 연결될수 있고 「여론재판」을 하려한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야법조계에서는 답답재판부의 판단이 「법과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 결과만을 놓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의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많아 이를 투쟁과정에서 어떻게 수용해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李夏慶기자〉

법원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1990. 08. 21

무죄판결 항의 박종철 아버지 박정기씨

인터뷰

재판부 '고문은폐' 거짓말 면죄부 준셈

국민들 가만있으면 제2종철이 나올 것

"이번 판결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저들의 거짓말이 진실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20일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을 방문, 담당검사 등에게 이번 무죄판결에 대한 항의서한을 전달한 뒤 오후 늦게 마포구 신수동 큰아들 종부(32)씨 집으로 돌아온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62)씨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문을 열었다.

"법도 국민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을 법원이 하면 앞으로 국민들 인권은 누가 보장해줍니까."

지난 17일 라디오뉴스에서 무죄판결 소식을 처음 듣곤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 부리나케 밖으로 나가 신문을 사보았다는 박씨는 "방청 온 대공과 동료들이 무죄판결에 환호성을 올렸다는 기사를 읽곤 앞으로도 고문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져 소름이 끼쳤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의 의미를 '독재정권이 국민의 힘을 시험해보는 것'이라고 나름대로 분석했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대법원에서라도 저들을 다시 구속시키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가만있으면 앞으로, 제2, 제3의 종철이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9천여만원의 배상금에 보태 조그마한 박종철씨 기념회관이라도 짓기 위해 한달전 부산 집까지 팔고 지금은 서울 큰아들 집에서 살고 있다.

"우선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봅니다. 또 법원도 정치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씨는 박종철씨 사건 당시 많은 관심을 보여줬던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이 지금 야당으로 버티고만 있었어도 이런 판결은 안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웃었다. 지난 일요일엔 혼자 경기도 모란공원에 있는 아들의 초혼묘에 찾아가 통곡했다는 박씨는 "오직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만이 종철이를 다시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수 기자〉

1990. 08. 21.

박종철씨 사건 관련자 항소심 판결

검찰, 범죄사실 축소 의혹

불충분한 증거로 공소장 꾸며

이학봉·장세동씨 사건등에 영향 끼칠듯

온 국민을 분노시킨 박종철씨 고문치사 범인은폐·조작사건과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씨를 비롯한 고위경찰관 4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앞으로 있을 이학봉(민자당 의원)·장세동(전 청와대 경호실장)씨에 대한 항소심, 1심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김근태씨에 대한 고문경찰관 4명의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강민창씨 등에 대한 무죄선고는 박종철씨 '고문치사'가 87년 6월항쟁의 기폭제로 작용할 만큼 정국의 흐름을 뒤바꾼 역사적 사건이었는데도 무죄선고 이유가 대부분 '증거 불충분'으로 나와 있어 당시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검찰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법조계 안에서 강하게 일고 있다.

현재 검찰은 2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배돼 법률심을 다루는 대법원의 상고이유가 된다면서 2심 재판만으로 섣불리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문경찰관 조한경씨와 부검의 황적준씨가 2심재판에 나와 1심 진술을 부인했다며 2심재판부가 1심증언을 배척한 채 2심증언을 증거로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제시하지 않아 채증법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번 항소심의 무죄선고만으로도 비슷한 죄목의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당장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재판은 강민창씨처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학봉씨와 장세동씨의 항소심이다.

이학봉씨는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시절 연합철강 전 회장 권철현씨에게 압력을 넣어 연합철강 주식을 동국제강에 매각하도록 종용하고 감사원 감사 등에 개입,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7월 징역2년 자격정지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항소중이다.

장세동씨도 전 대통령 전두환씨의 퇴임에 대비, 서울시와 건설부에 압력을 넣어 일해재단 영빈관을 건축했고 서초구 양재동에 전두환씨의 사옥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에 도시계획변경 등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10월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직권남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가 엄격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고 △이 때문인지 장세동씨의 경우 혐의사실중 양재동 제2사옥부분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찰이 여론에 밀려 증거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기소했다는 사실 등을 들어 이 두 사건의 항소심 재판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또 박종철씨 고문치사 범인은폐·조작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내각개편이 단행되고 후임 이한기 총리가 사과담화까지 발표한 사실을 들어 무죄선고에 따른 책임을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검찰관계자에게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증거부족으로 무죄선고가 내려질 경우 담당검사는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수사 지휘체계에 따른 문책이 어떤 형태로든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유현석 변호사는 "단순한 법률적인 견해차이가 아니라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면 수사 주체인 검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재야 내일 항의시위

홍제동 대공분실 앞서

박종철 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민련 인권위원회, 평민당, 민주당, 민중당, 통추회의 등 12개 정당·재야단체는 20일 오전 9시께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사건 관련자 4명에 대한 법원의 무죄판결과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22일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평화적인 항의시위를 벌이는 한편 이달말께부터는 판결을 규탄하는 거리서명과 옥내집회를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62)씨 등 이들 단체 대표들은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을 방문, 이번 판결에 대한 항의서한을 법원과 검찰쪽에 전달했다. <인터뷰 13면>

이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로 재판부는 고문을 합법화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검찰로 대표된 노 정권은 이땅에서 민주와 인권을 말살하기 위한 반인권적 거사를 성취했다"면서 "3당야합 이후 영구집권을 추구하고 있는 수구세력을 막지 못하면 제2·제3의 박종철이 계속 나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문은폐 무죄' 규탄집회 무산

1990. 08. 23

경찰 원천봉쇄 대공분실 앞서 강제격리

박종철 기념사업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평민당 등 12개 정당·재야단체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앞에서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사건 관련자 무죄판결 규탄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경찰의 원천봉쇄로 무산됐다.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62)씨와 어머니 정차순(57)씨, 고 전태일씨의 어머니 이소선(60)씨, 김근태씨의 부인 인재근(38)씨 진관스님 등 정당원·재야단체 회원 40여명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대공분실에서 2백여m가량 떨어진 161번 시내버스 종점에 모여 "고문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라고 쓰여진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고문합법화 영구집권 수단이냐" "인권유린 노태우 정권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공분실쪽으로 평화 행진을 시도했으나 10분만에 경찰에 의해 30여명이 버스에 강제로 태워져 경기도 하남시 미사동 미사리 조정경기장까지 가 내려졌다.

'박종철씨 고문'무죄 규탄 시위

1990. 08. 25 500

대학생 2백여명 신촌서

'노동운동 탄압분쇄와 반민중적 민자당해체를 위한 서울지역 대학생 공동대책위' 소속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학생 2백여명은 24일 오후 5시40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로터리 신촌문고 앞 도로에서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사건 관련자에 대한 무죄판결을 규탄하는 기습 거리시위를 벌인 뒤 20분만에 스스로 해산했다.

학생들은 이날 신촌로터리 근처 골목길에 흩어져 있다가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신호로 거리로 몰려나와 신촌문고 앞 도로를 점거, "치안본부 고문살인 사법부가 무죄선고"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유인물 3백여장을 나누어 준 뒤 20여분만에 스스로 해산했다.

「고문無罪」항의농성

동아 28.

치안본부앞 70여명 연행

1990.

朴鍾哲군사기념사업회원과 서울대생등 70여명이 28일오전10시경 서울西大門구 漢芹동 치안본부정문앞에서 고朴鍾哲군고문살해은폐조작사건 관련자 항소심무죄판결에대한 공개서한을 전달하려다 10분만에 전원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공개서한을 통해 △고朴鍾哲군고문살해사건에대한 은폐조작중단과 관련자처벌 △고문후유증으로 고통받다 분신자살한 고崔東씨에대한 고문진상해명과 관련자전원구속 △밀실고문과 민중탄압의 상징인 치안본부 안기부 보안사등의 즉각해체 △국가보안법철폐와 양심수 석방등을 요구했다.

'고문은폐' 무죄 항의농성

대학생 70명 치안본부앞

1990. 08. 29 1.5

서울대 박종철추모사업회 소속 대학생 70여명은 28일 오전 9시55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치안본부 정문앞으로 몰려가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 관련 항소심 무죄판결에 대해 항의하는 연좌시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게 모두 연행됐다.

이들은 이날 "고문살인 무죄선고 주동자 규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킷 10여개를 들고 "고문책임자 처벌"등 구호를 외치며 10여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朴鍾哲군 拷問치사 은폐사건

李富榮씨가 司祭團제보

중앙 1990. 08. 29.

朴鍾哲군 고문치사 축소·조작·은폐사건을 천주교 사제단에 폭로토록 한 제보자가 李富榮씨 (統推회의상임실행위원) 였음이 29일 李씨에 의해 밝혀졌다.

李씨는 이날 자신이 5·3 仁川사태 배후 주동혐의로 永登浦교도소에 구속수감중이던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소속 趙漢慶경위 (45)·姜鎭圭경사 (33) 등 2명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확인,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李씨의 제보에따라 사제단은 같은해 5월18일 서울明洞성당에서 光州사태 7주기추모미사를 갖는자리에서 金勝勳신부가 낭독한 유서 金勝勳신부를 통해 『朴군을 직접 고문해 죽음에 이르게 한 진짜범인은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계류중인 趙漢慶경위와 姜鎭圭경사가 아니라 학원문화1반소속 경찰3명으로 현재 경찰관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고 폭로했었다.

李씨는 『趙·姜 두 경찰관은 그해 1월17일께 입감된 두사람의 상급자인 치안본부 5차장 朴處源치안감·대공수사5과장 劉井邦경정 등이 면회때 나누었던 대화내용을 포함, 사건진상과 관련한 두사람의 발언을 교도소내 여러경로를 통해 전해듣고 폭로를 결심했다』 고 밝혔다.

李씨는 당시 新民黨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했으나 이를 발표하지 않자 재차 사제단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李씨는 그러나 『진상입수 및 외부전달의 구체적 경위와 과정은 공무원등 본인들에게 돌아올 불이익을 고려, 현재로서는 공개할 수 없다』 고 말했다.

李씨는 최근 趙·姜두사람이 함소심에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 姜致昌당시치안본부장등 朴군고문치사축소조작 경찰관 4명이 무죄판결을 받자 朴鍾哲기념사업회주관으로 30일 明洞성당에서 金勝勳신부와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당시의 폭로과정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같은 사정을 고려, 자신은 불참키로 했으며 金신부만 단독으로 참석하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고문은폐' 무죄 규탄 거리서명 경찰 저지

1990. 09. 0

박종철기념사업회는 계훈제·이부영씨 등 재야인사와 문인 김규동씨 및 회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서울 중구 명동성당 앞과 을지로 입구 전철역 등지에서 '고문합법화 및 6월항쟁 무효화음모 규탄 서명운동'을 벌이려 했으나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다.

변협인권위, 박승서 회장 사임권고

1990. 09. 06.

"강민창씨 변론은 회원들 명예 먹칠"

대한변협 인권위원회(위원장 유현석 변호사)는 5일 박종철씨 사인조작사건으로 기소된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의 변호를 맡았던 박승서 대한변협 회장의 사임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인권위는 이날 낮 12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민사지법 변호사 분실에서 30명의 위원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5차 회의에서 "인권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로 하는 변협의 회장이 대표적인 인권탄압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를 맡은데 대해 인권위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인권위원 전원이 사퇴할 것도 함께 결의했다.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집단적으로 회장에 대한 사퇴를 권고한 것은 지난 74년 서울제일변호사회가 강신옥 변호사의 구속과 관련, 곽명덕 당시 회장의 사임을 권고한 데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인권위원들은 이날 회의가 끝난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 당시 변협이 은폐조작 관련자를 엄벌하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변협회장이 공식입장과 달리 강씨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결과적으로 무죄선고가 나도록 한 것은 커다란 충격"이라며 "인권상황이 5공 이전으로 후퇴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대한변협이 쌓아 올린 민주화에 대한 공헌과 회원의 명예를 먹칠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자책하며 이같이 결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회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이 사건을 맡은 것은 변협 회장에 선출되기 이전인 지난 88년 4월이었으며 회장이 된 뒤 사임계를 내려 했으나 강씨쪽에서 계속 변호를 맡아줄 것을 강권해 변호사의 윤리상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해명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추천으로 선출돼 내년 2월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권고를 받아들여 사임할 경우 정보성 부회장이 내년 2월까지 회장직을 맡게 된다.

'고문은폐' 무죄 검찰 상고

1990. 09. 07.

이유서는 다음주 제출키로

서울고검은 6일 박종철씨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관련피고인 4명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다음주에 상고이유서를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이유서에서 "강 전 치안본부장이 박씨의 부검의인 황적준 박사에게 사인을 축소해 메모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내용의 황 박사 일기장이 증거로 제출됐고 황 박사가 2심법정에서도 메모작성 때 상부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인했는데도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500-박종철

記者의 눈

거꾸로도는 「人權시계」

24일 법무부가 성탄절을 맞아 특별가석방한 모범수 3백94명의 명단속에는「黃正雄」(45)이란 이름이 들어있어 이를 본 기자를 놀라게했다.

黃正雄 그는 누구인가. 전직경찰관(경위출신)인 黃씨는 지난87년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속칭 남영동)에서 서울대생 朴鍾哲군을 고문해 숨지게 한 고문경찰관5명중의 한명이다. 그는 악랄한 남영동분실 조사실에서 동료경찰관4명과 함께 한 수배학생의 소재를 캐낼 목적으로 연행한 朴군을 고문하면서 朴군의 팔을 잡아 욕조에 얼굴을 처박게해 끝내 숨지게한 역할을 맡았던 바로 그 사람이다. 뿐만아니라 그는 朴군고문치사사건이 알려지자 당시 치안본부 간부들의「사건축소모의」에 따라 모든 죄를 趙漢慶 姜鎭圭경찰관에게만 뒤집어 씌우고 뒤로 숨었다가 뒤늦게 축소조작 모의사실이 드러나면서 추가로 구속된 3명의 경찰관중 한명이다.

그는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상고,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만료 1년5개월을 앞두고 이날 가석방된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黃씨의 가석방에 대해「그가「모범수」였으며 확정형량(징역5년)의 70%이상을 이미 복역해 가석방요건에 해당한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가 성탄절 특별가석방자 명단에 고문살해범인 黃씨를 슬그머니 끼워넣은「저의」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재야법조계의 반응이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그야말로 순수하게「法대로만」본다면 黃씨가 가석방요건을 충족하고 있기때문에 나무랄 일이 못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6共들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고문시비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가석방은 사려깊지 못한 조치라는 비판을 면키어렵다.

특히 최근 정부의「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시국사범에 대한 안기부등 특수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뿐아니라 일선 경찰에서도 피의자들의 고문당했다는 주장이 꼬리를 물고있다.

법무부는 이번 가석방조치를 단행하면서도 살인 강도 강간 마약사범등 흉악범은 가석방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는 흉악범들의「재범가능성」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외에도 범죄자들에게 정부의 엄벌의지를 밝혀 범죄를 미리 예방하자는「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기위한 측면도 있다.

24일 경주교도소에서 풀려난 黃씨가 다시 고문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은 없다.

또 黃씨가 3년7개월간 복역했으므로 충분히 죄과를 치렀고「罪는 밉더라도「人間」은 미워할 수 없지 않느냐」는 동정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反人權的 反文明的인 고문범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점에서, 또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많은「잠재적인 고문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어 고문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이번 조치는 한마디로 잘못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5월1일 석가 탄일에도 5共비리와 관련해 구속됐던 全斗煥전대통령의 맏형 全基煥씨를 형기만료 6개월전에 석방해 5共의 권력형부조리에 대해서 필요이상의 관대한 자세를 보인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샀었다.

두 가석방조치를 비교해 볼때 이번 조치가 全씨의 가석방때보다 더 큰 비난을 받아야 한다.

黃씨가 석방된 24일은 金權泰씨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전기고문 기술자」李根安전경감이 잠적한지 2년째되는 날이라는 점에서 과연 정부당국이「제도적 폭력」에 다름아닌 고문범죄를 척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리들의 마음속에 있는「인권시계의 바늘」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 기자의 솔직한 심정이다.

崔英勳〈사회부〉

1990. 12. 25

朴鍾哲군 고문致死 警官 슬그머니 聖誕가석방

1990. 12. 25 동아

刑期만료 1년5개월남겨 욕조에 밀어넣었던 장본인

재수사끝에 구속된 黃正雄경위

朴鍾哲군고문치사사건과관련,구속기소돼 대법원확정판결을 받아 경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前치안본부 대공수사관 黃正雄씨(당시 경위)가 법무부가 24일자로 단행한 가석방대상자에 포함돼 석방된 사실이 밝혀졌다.

黃씨는 지난 87년2월 이 사건과 관련, 趙漢慶씨(당시 경위)등 2명이 1차로 구속된뒤 고문관련자가 더 있다는 의혹에 따라 검찰이 재수사한 끝에 구속됐었다.

黃씨는 지난87년1월14일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朴鍾哲군의 친구인 河모군을 조사하다 朴군 고문에 합류, 朴군의 왼팔을 붙잡아 욕조에 朴군을 밀어넣었으나 1차조사에서는 은폐조작으로 구속되지않았다.

黃씨는 구속 4개월만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폭로로 그해5월22일 동료경찰관 2명과 함께 추가로 구속돼 1심에서 징역7년을 선고받고 상고, 5년형이 확정돼 복역하다 형기만료를 1년 5개월 앞두고 3년7개월만에 석방된 것이다.

한편 이사건과관련,구속된 5명가운데 3년형을 확정선고 받았던 李正鎬씨는 지난 5월 만기출소했으며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趙漢慶씨와 8년형을 선고받은 姜鎭圭씨(33), 6년형을 선고받은 潘金珅씨(45)등 3명만 현재 복역중이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黃씨의 경우 평소 수형자세가 모범적인 모범수이며 확정형량의 70%이상을 복역했으므로 가석방대상자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黃正雄전경위

박종철 고문경관 석방

1990. 12. 25

황정웅 경위 성탄절 특별가석방에 포함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던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위 황정웅(44)씨가 24일 단행된 성탄절 특별가석방 대상자에 포함돼 석방됐다.

황씨는 지난 87년 2월 이 사건과 관련, 조한경·강진규씨 등 경찰관 2명이 1차로 구속된 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에 의해 고문경관이 3명 더 있다는 사실이 폭로돼 검찰이 재수사를 벌여 같은해 5월 구속됐다.

법무부쪽은 이와 관련 "황씨가 형기의 3분2 이상을 복역하고 수감중 모범적인 수형태도를 보여왔기 때문에 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악화되는 인권상황에 경종을"

고 박종철씨 4주기 맞아 오늘부터 이틀간 추모행사

지난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21살의 젊음을 '민주의 제단'에 바친 서울대생 박종철씨를 기리는 4주기 행사가 13일과 14일 잇따라 열린다.

박종철씨의 아버지 박정기(61)씨는 12일 "종철이를 강에 떠내려 보내던 날의 회한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며 "그런데도 6공 들어 고문시비가 잇따르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위정자들이 아직도 종철이의 죽음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고 말했다.

사노맹·혁노맹·자민통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의고문이 최근 잇따라 폭로되면서 맞은 이번 추모행사를 앞두고 민가협 등 재야단체에서는 "지금 고문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2의 박종철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라고 우려하고 있다.

13일 낮 12시에는 박종철씨가 묻힌 경기도 마석 모란공원묘지에서 아버지 박씨와 대학동료·재야인사들의 묘지참배가 있으며 같은날 오전 10시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사리암에서는 어머니 정차순(58)씨와 친척, 부산지역 재야단체 회원들이 참석하는 추모제가 열린다.

또 오는 14일 오후 6시 서울 종로구 동숭동 홍사단에서는 박종철기념사업회와 민가협·전민련 등 6개 단체가 마련한 '박종철 열사 4주기 추모식 및 반고문 인권 보고대회'가 열려 "고문없는 세상을 만들라"는 박종철씨 죽음의 참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사노맹·자민통 등 6공 들어 발생한 대규모 시국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안기부 등 수사기관의 고문사례가 발표되며 '반고문 인권옹호 결의문'도 채택될 예정이다.

박종철기념사업회 간사 박종운(30)씨는 "6공 출범 뒤에도 별 개선이 없던 인권상황이 민자당 창당 이후 급격히 악화돼 왔다"며 "박종철 열사 4주기는 퇴보하는 인권상황에 대한 경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일어난 △사노맹·자민통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고문수사 △서울 구치소 양심수 집단폭행 △아홉번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윤아무개군에 대한 고문시비 등은 인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더욱이 지난해 8월18일 박종철씨 고문치사범인 은폐조작 사건과 관련, 기소된 전 치안본부장 강민창씨와 전 치안감 박처원씨 등 전 경찰간부 4명이 무죄로 풀려나고 박종철씨를 직접 고문한 황정웅 전 경위마저 모범수로 선정돼 성탄절 특사로 가석방되기까지 했다.

〈정재권 기자〉

시국사건등 수사기관 고문시비 잇따라

1991. 1. 13

재야, 6공사례 발표·반고문결의문 채택 예정

窓

1991. 1. 14 동아

숙연한 「假墓추모제」

故 朴鍾哲군 「고귀한 죽음」 기려

13일정오경 京畿도南楊州군和道면磨石 모란공원묘지에 있는 고朴鍾哲군의 가묘(假墓)에서는 아버지 朴正基씨(63)등 유가족과 재야단체회원 학생등 1백여명이 朴군4주기추모제를 가졌다.

묘지에는 그동안 내린 눈이 수북이 쌓여있고 이날따라 날씨마저도 추웠다.

朴군의 시신은 독재의 시퍼런 서슬에 눌려 무덤조차 만들지 못하고 화장으로 한줌의 재가돼 임진강에 흩뿌려져야 했다. 이같은 朴군의 원혼을 달래기위해 지난 89년3월에 가묘가 만들어졌고 이번행사는 묘지에서 갖게되는 두번째 추모행사였다.

朴군가족들이 무덤앞에 제수를 차리는 동안 참석자들은 매우 진지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서있어 추모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묘지주변은 숙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가족들에 이어 차가운 눈위에 무릎을 꿇고 분향재배하며 朴군을 추모하던 일부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소속 부인들은 참다 못해 끝내 흐느끼기도 했다.

추모제가 진행되는 동안 朴군의 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깊은 상념에 젖었다가 이따금씩 먼곳을 쳐다 보았다. 朴군의 약력소개에 이어 朴군이 생전에 재학했던 서울대 언어학과의 鄭德煥군(22·4년)이 朴군의 장례식에서 낭독됐던 「우리는 결코 너를 빼앗길 수 없다」란 추모시를 다시 읽었다.

「…차가운날 한뼘의 무덤조차없이/언강 눈바람속으로 날려진/너의 죽음을 마주하고…우리는 입술을 깨문다…너를 삼킨자들이 아직도/그 구역질나는 삶을 영위해가고 있는 이땅…마른줄기에서 피어나는/눈물뿐인 이나라의 꽃이 되어라…」

전민련상임고문 桂勳悌씨는 추도사를통해 「朴군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숨진뒤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고문없는 민주사회가 이룩되지 않았다」면서 「朴군의 고귀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민족통일과 노동해방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참석자들이 하산을 서두르고 있을때 민가협회원인 吳英子씨가 朴군의 묘위에 쌓인 눈을 맨손으로 쓸어내리면서 「朴군이 죽은지한달만에 학생운동과 관련해 의문사한 딸(당시 서울교대2년)이 생각나 피가 끓는다」며 울부짖어 주위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추모제가 끝나고 아들의 영정을 보자기에 싸들고 산을 내려가던 朴군의 아버지는 「鍾哲이의 고문살인범들이 무죄로 석방되고 全斗煥씨가 연희동집으로 「금의환향」한 것을 보면서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鍾哲이의 죽음이 단지 흘러간 역사속의 한 사건으로만 아니라 항상 「오늘의 인권문제」로 기억되기를 바랄뿐」이라고 말했다.

〈梁基大기자〉

박종철씨 4주기 추모집회 잇따라

지난 87년 1월1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당하다 숨진 박종철씨의 4주기를 기념하는 추모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1991. 1. 15

서울지역총학생회연합(서총련) 소속 대학생 1천2백여명은 14일 오후 2시 동국대에서 '박종철 4주기 추모 및 민자당 타도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한편 박씨의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대 등 각 대학에는 이날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박씨의 넋을 기리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또 박종철기념사업회·민가협 등 6개 단체가 마련한 '박종철열사 4주기 추모 및 반고문 인권보고대회'가 이날 오후 6시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강당에서 재야인사·학생·시민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친구는 멀리갔어도 그 숨결 아직도…"

「박종철 출판사」 출범

지난87년 서울南營洞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의해 숨진 서울대생 고朴鍾哲군의 대학친구들이 朴군의 뜻을 잇기위해 만든 출판사가 지난7월 설립된후 9개월여만의 작업끝에 첫책으로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전6권중 제1권을 발간, 화제가 되고있다。

『朴鍾哲열사는 우리국민에게 독재에 항거하는 영원한 감시자의 이름입니다。우리는 좋은 책을 만들어냄으로써 朴열사의 이름을 길이 남기자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첫번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책이지요』

대공분실에서 고문에 의해 숨진 서울대생 고朴鍾哲군의 대학친구들이 朴군의 뜻을 잇기위해 만든 출판사가 지난7월 설립된후 9개월여만의 작업끝에 첫책으로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전6권중 제1권을 발간, 화제가 되고있다。

『朴鍾哲열사는 우리국민에게 독재에 항거하는 영원한 감시자의 이름입니다。우리는 좋은 책을 만들어냄으로써 朴열사의 이름을 길이 남기자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의 첫번째 결과가 이번에 나온 책이지요』

박종철출판사 대표 崔仁鎬씨(25)는 국민의 뇌리에서 희미해 지고있는 朴군에대한 기억을 되살리고자 책을 발간케됐다고 설명했다。

박종철출판사는 朴군과 같은 서클(대학문화연구회)에서 함께 공부하고 활동한 동료 선후배 6명이 모여 설립한 사회과학전문출판사。

崔씨도 朴군의 같은과(언어학과)친구이자 서클동료다。

崔씨는 출판사설립과 관련 朴군가족의 양해를 얻었다고 전하며 특히 朴군의 아버지 朴正基씨의 격려가 가장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물론 朴군을 기념키위해 출판사를 설립했지만 체계적이고 올바른 번역으로 마르크스에대한 책을 제대로 복원하기위한 목적도 있습니다。마르크스에대한 올바른 이해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된 번역서가 없었기때문이지요』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독일디츠출판사에서 70~72년에 발간한것으로 학생 교사등 비연구가들을 위해 마르크스 레닌부의의 3대구성부분인 철학 정치경제학 과학적사회주의를 포괄하는 저작들을 한데모은것。그중 이번에 1843년에서 1849년까지 주요저작 편지를 담은 제1권을완역했다。

『최고의 번역서로 만들기위해 그동안 전직원이 번역에 매달렸어요。학부 졸업생들도선 부족한 지식을 메우기위해 한문장 한문장 어떻게 번역할것인가 토론했지요』

崔씨는 이러한 노력때문인지 서점가에서 번역에대한 반응은 매우좋다고 말했다。선집은 올10월경 2권과5권을 내고 내년말까지전6권을모두 출판할 예정。또 그후에는 레닌선집(전6권)과 선집에 포괄하지못한 단행본을 출판할계획이다。

『출판사자본금은 친구들로부터 낸 5천여만원인데 이윤을 남길 생각은 없고 원래 기획한 책을 모두 출판하길 바랄뿐입니다。앞으로 올바른 출판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도움이 필요한만큼 이들의 연구를 지원할 계획도 갖고있습니다』

1991. 5. 03 동아

같은서클 선후배 6명이설립

「마르크스-엥겔스選集」 1권 호평

1991. 5. 09 동네방네

꽃같은 자식 가슴에 묻고서

어버이날을 맞은 고 박종철씨의 어머니 정차순(59·서울 마포구 염리동)씨의 카네이션엔 올해 유난히 눈물자국이 짙게 배었다.

이날 아침 '종철이 삼촌'이 숨진 뒤 태어난 손자 병주(3)가 가슴에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줄 때만 해도 할머니 정씨는 흐르는 눈물을 꾹 참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정씨는 남편 박정기(63)씨가 경기도 마석에 있는 아들의 묘소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선 뒤, 서울에서 공부하던 아들이 어버이달이면 어김없이 전화를 해 "어무이 잘 있습니꺼. 지는요 잘 지내요. 아무 염려마이소"라며 안부를 묻던 생각에 이내 눈물을 와락 쏟아야 했다.

아들을 가슴에 묻은 뒤 건강이 극히 나빠져 좀처럼 문 밖을 나서지 않았다는 정씨는 "지난달 경대가 벌건 대낮에 경찰에 맞아 죽은 뒤 종철이가 고문을 당해 숨지던 모습이 하루에도 몇십번씩 떠올라 몸서리친다"고 말했다.

정씨는 강경대씨 타살 이후 젊은이들의 분신·사망이 잇따르면서 자신이 당했던 분노와 설움이 또다시 이들의 부모에게도 한으로 맺히게 돼 애탄다고 했다.

"자식 둔 부모의 맘이 종철이가 저 세상 갈 무렵이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아이가 밤늦게라도 집에 와야 '불들려가지 않았구나' 안도하며 눈 붙이는 어미의 심정을 누가 압니까."

종철씨의 사진을 보며 눈시울을 붉히던 정씨는 마침내 "꽃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 어미 맘을 누가 압니까"라며 눈물을 쏟았다. 〈이상기 기자〉

記者의 눈

朴鍾哲군 아버지의 「운명」

1991. 7. 08

7일오후 특수법정소동혐의로 구속된 朴正基씨(62)는 지난87년1월 아들朴鍾哲군(당시 서울대언어학3년 재학중)이 경찰의 물고문으로 목숨을 잃을때까지만해도 쏘山시影島구에 있는 한 배수장의평범한 관리인에 불과했다.

당시 朴씨는 살림살이가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두아들과 딸이 모두 공부를 잘해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던 가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막내아들이 경찰에 끌려가 치안본부대공분실에서 물고문으로 죽게되고 이사건이 5共정권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으로 확산되면서 운명의 변화를 맞기 시작했다.

고문관련경찰관이 구속되고 또 朴군고문치사사건을 은폐 축소조작하려던 경찰고위간부들이 뒤늦게 추가구속되는등 아들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이 꼬리를 물고 계속됐기 때문이었다.

그는 배수장 관리인직도 버리고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죽어간 아들의 뜻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관련피의자에 대한 공판이 열릴때마다 법정에 나가 재판진행과정을 지켜보았다.

그런가운데 최루탄에 맞아 숨진 연세대생 李韓烈군의 부모를 찾아가 위로를 해주는등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됐다.

그러나 그러한 운명의 변화를 맞은지 4년반이 지난 지금 그는 손목에 쇠고랑을 차고 감옥에 들어앉아야하는 처지가됐다.

姜慶大군 치사사건 공판정에서 다른 유가협회원들과 고함을 치고 교도관의 얼굴을 들고있던 부채로 때렸으며 부채를 법대쪽에 던져 소란을 피웠다는 것이 그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공판을 지켜 본 많은 사람들은 朴씨가 다른 사람에 비해 그다지 과격한 발언이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鍾哲아 잘 가그레이. 이 아부지는 아무 할말이 없데이…』하며 한강의 샛강물에 한줌의 재로 변한 아들의 넋을 뿌리며 엄청난 슬픔과 분노를 달래야 했던 朴씨.

『나는 법정소란을 끝까지 말리려했데이…』라는 말을 남기고 비통한 표정으로 구속되던 그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사회가 겪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崔英勳〈사회부〉

투시경

정구영 총장과 박정기씨

1991. 7. 09

지난 87년 1월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경찰의 물고문으로 참혹한 죽음을 당함으로써 5공 말기 시국전개의 뇌관이 됐던 고 박종철씨.

그의 아버지 박정기(60)씨가 그로부터 4년6개월만인 7일 오후 구속수감되는 모습은 이 시대의 아픔을 상징하기에 충분했다.

강경대씨 사건 공판정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혐의로 쇠고랑을 찬 박씨는 지금 서울구치소의 좁은 공간에 갇혀 있다.

박씨 구속의 총지휘자격인 정구영 검찰총장의 감회도 착잡할 것 같다. 정 총장은 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과는 '악연'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정 총장이 4년여 만에 보복한 것이 아니냐"는 뼈있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그는 지난 87년 박종철씨를 고문한 경찰관이 더 있다는 언론의 폭로가 있은 직후 검찰의 '꽃'이라고 불리던 서울지검장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광주고검장으로 '좌천'되는 참담한 과거를 지니고 있어 이번 박씨의 구속은 참으로 질긴 '인연의 업보'라 할 수 있다.

평소 소탈하고 정감이 넘치는 정 총장의 인격을 믿는 사람들은 '개인보복설'에 펄쩍뛰기는 하지만 검찰의 이번 박씨 구속은 너무 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다.

박씨는 말썽이 됐던 지난 4일 공판정에서 다소 독특한 언행으로 기자의 눈길을 끌었다.

강경대씨의 가족들과 민가협회원들의 고함소리가 이어질 때도 그는 띄엄띄엄 꺼져가는 목소리로 "검사가 그러면 못써…"라며 시종 혼잣말처럼 되뇌는 모습이었다. 박씨가 부채를 던졌다고 하나 그때는 이미 휴정이 선언된 뒤였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의 구속대상자 선정 근거가 관련자 개개인의 법정행동보다 '본때'를 보인다는 차원에서 일괄적인 처벌방침을 정해놓고 박씨를 얽어맨 인상이 짙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혐의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다는 것이다.

사실 사건 직후 검찰이 "구속할 필요까지 있겠느냐"는 반응을 보이다가 다음날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주동자는 구속할 방침"이라며 태도를 갑자기 바꾸었을 때도 박씨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었다. 그런 검찰이 변협쪽의 엄벌 요구가 있고서야 전격적으로 구속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아무래도 석연치 않다는 느낌이다.

박씨 구속을 지켜보면서 지울 수 없는 느낌은 박종철씨 고문치사 이후의 흐름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결국은 그 아버지의 구속으로까지 귀결된 데 대한 격세지감이다. 〈박무엽 기자〉

"죄없는 사람의 올가미 벗겨라"

1991. 7. 12

고 박종철씨 어머니 글

내 아들 종철이가 경찰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지 4년이 지났다. 그들은 우리 부부의 크나큰 희망이었던 아들을 10시간이 넘도록 때리고 물 먹이고 전기로 충격을 주어서 서서히 잔인하게 죽여 놓았다. 어미 아비인 우리 부부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겠는가. 차라리 아들을 따라 죽고 싶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내 자식이 죽음에 이르는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머지 않아서 좋은 세상이 온다는 신념,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 말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그 좋은 세상 만드는 일을 같이 해야 했던 것이고, 또 그 세상을 보고 죽어야 하는 것이다.

나는 살아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 가정을 지켜야 했고, 남편은 밖에서 민주화운동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저들은 경대를, 때려죽인 전경들의 재판 도중에 난동을 부려서 재판을 중단시키고 사법부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남편을 구속했다.

'권위있는 사법부'가 얼마나 엉터리 재판을 했으면 유가족이 분통이 터지다 못해 법정에 신발과 명패를 던질 수 있었겠는가. '권위있는 사법부'가 왜 죄없는 사람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감옥에 가두는가. 남편은 다른 회원들을 진정시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다. 지난 7일 새벽 남편은 지방에서 올라와서 옷이라도 갈아 입고 아침에 자진출두하려 했는데, 검찰은 그날 새벽 굳이 연행해 갔다.

남편은 결백하므로 끝까지 술두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 불쌍하고 억울한 유가협 회원들을 대표해서 할말은 해야 한다. 또 개인적으로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숨어 지낼 수 없다"면서 당당하게 따라갔다. 그러나 그날밤 텔리비전에 비친 남편의 분함을 억누르려고 애쓰던 고통스런 표정을 잊을 수 없다. 왜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고, 한쪽의 진술만 따라 남편의 완강한 부인은 무시하는가, '권위있는 사법부'여! 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가. 왜 세 야당은 침묵하고 있는가. 5·6월의 계속된 투쟁으로 건강이 많이 나빠진 노인을, 한여름에 감옥에 가두는 것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뜻이 아닌가.

4년 동안 종철이 아버지는 참 열심히 살아왔다. 종철이 같은 자식들이 죽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슬퍼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거의 매일 함께 밤을 지새주는 일로부터, 장례 때는 묏자리를 알아보는 등 제반 '치산'에 관한 치다꺼리를 한다. 먼 지방 대학의 작은 집회 초청 때 간단한 인삿말 정도도 며칠 동안 원고를 준비해서 내려간다. 이것이 64세의 종철이 아버지의 투쟁 모습이다.

하늘이 무섭거든 죄없는 종철이 아버지를 내놓아라! 별 혐의도 없고 불쌍한 송광영·박신영 열사의 어머니, 이기정 어머니의 수배를 해제하라!

우리와 같이 원한과 고통으로 살아가는 강경대 아버지를 석방하라! 그리고 경대 관련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라.

정 차 순

朴鍾哲군 고문경관등 성탄절특사로 가석방

朴鍾哲군 고문치사사건으로 징역6년이 확정돼복역중인 치안본부(현 경찰청)대공수사단 沈金坤경장(48)과 통일민주당지구당 창당방해사건(일명 용팔이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징역3년을 선고받고복역중인 李主熙前민주당의원(57)이 24일 법무부의 성탄절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관계자는 1991. 12. 24 와관련, 『현재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沈씨는 형기의 74%를, 의정부교도소에 수감중인 李씨는 형기의 85%를 복역, 가석방기준을 훨씬 넘긴데다 행형성적이 우수해 가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